

Vol. 9 | 2020 SPRING

티처빌 매거진



Zoom in Focus

2021학년도 이후 변화하는 대입 정책

Class Know-How

서먹하던 새 학기 분위기가
어느새 “들썩들썩”

Hot EduTech

이제는 수업도 큐레이션한다

Interview & People

“세상에 길을 보여주는 작은 영웅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교사를 위한 온라인 상담실 ‘ 쌤톡톡 ’

Teacher Life

“그림을 선물하면서 세상이 달라졌어요”

COVER STORY

쌤하!!

선생님들의 친구 '쌤구' 인사 드립니다.

앞으로 선생님들과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2020년 쌤구와 함께하는

즐거운 학교생활.

많이 기대해 주세요~!!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교육의
씨앗을 피울 수 있도록
티처빌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티처빌 매거진

〈티처빌 매거진〉은 최신 교육 이슈 및 동료 교사의 수업 노하우, 학교 현장의 다양한 소식과 더불어 테크빌교육의 브랜드 이야기를 담은 사외보 계간지입니다.

2020년 티처빌 회원등급제 도입에 따라
티처빌 VIP 선생님 가운데 매거진 구독신청을 하신 분들께
연 4회 〈티처빌 매거진〉 인쇄본을 무료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웹진으로도 〈티처빌 매거진〉을 더욱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티처빌 웹진 바로가기





당신에게 봄이 닿는 날엔
유난히 맑은 봄빛과
세상의 모든 설렘을 담은 봄햇살과
담백한 벚꽃향만이
함께 피어나길 기도해요.



사진, 정혜란 서울금옥초등학교 선생님
촬영장소, 서울 현충원

CONTENTS

Vol.9 | 2020 SPRING



발행처 테크빌교육(주)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51,
5·6·8층(역삼동, 프라자빌딩)
T. 02-3442-7783
F. 02-3442-7793

발행일 2020년 3월 13일 통권 제9호

발행인 이형세

기획·편집 테크빌교육 마케팅팀
티처빌 매거진 TF

원고문의 02-3442-7783(136)
lshpr@tekkville.com

디자인·인쇄 (주)태산애드컴
T. 02-2268-2488



티처빌 매거진은 환경부가 인증한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Zoom in Focus

- 06 2021학년도 이후 변화하는 대입 정책
· 박정훈
- 10 아이들의 삶을 담아내는 교실 공간 만들기
· 황정희

Class Know-How

- 14 서먹하던 새 학기 분위기가
어느새 “들썩들썩” · 김기정
- 16 보고 만지고 생각하다 “아하!” 깨닫는 수학
· 김반지
- 20 ‘열정기백쌤’이 추천하는
학기 초 즐거운 교실 놀이 · 성기백
- 22 내가 만드는 교실 속 웹툰 제작소 · 최현주

Hot EduTech

- 24 실리콘밸리에 부는 AI 광풍 · 전지연
- 26 이제는 수업도 큐레이션한다
· 에듀테크연구소
- 28 부산에 가면 바다와
‘MAKER-ARTIST’들이 있다
· 양홍규





30



34



50



52

Interview & People

- 30 “세상에 길을 보여주는 작은 영웅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 최재웅
- 34 교사를 위한 온라인 상담실 ‘쌤톡톡’ · 최성애
- 36 감정이 자유로우면 지성은 스스로 꽃피운다 · 신호승

Teacherville News

- 38 언론에 비친 테크빌교육
- 42 2020년 티처빌연수원 상반기 학사 일정
- 44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티처빌’의 변화 · 이성희
- 47 2020년 티처빌 신규과정
- 50 환영합니다, 선생님! 쌤에디션 ‘웰컴박스’ · 김준호

Teacher Life

- 52 “그림을 선물하면서 세상이 달라졌어요” · 김화인

Book

- 56 위기의 선생님께겐 반격이 필요해! / 돌배쌤의 점프 수학 / 학교 적응 놀이

Cartoon

- 58 리얼 초등교사 생존기 섭섭한 라이프 · 송정섭



2021학년도 이후 변화하는 대입 정책

정시 확대, 학생부위주, 수능위주 전형으로 단순화

글. 박정훈 입시투데이 대표

학생 수 감소로 전반적인 대입 경쟁률 완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2021학년도 이후 대입 주요 변화를 알아보았다. 우선 2021학년도 수능에서 수학의 출제 범위가 달라지며, 2022학년도에는 국어와 수학에서 선택형 수능이 시행된다. 다만 의학이나 공학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대학에서 수능 응시과목을 지정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대학 입시 주요 변화

구분		2021학년도 (현 고2)	2022학년도 (현 고1)	2023학년도 (현 중3)	2024학년도 (현 중2)
교육과정		2015교육과정 (도입)	2015교육과정 (적용)		
수학능력 시험	출제범위	수학 출제범위 변화	국어/수학 공통 + 선택형 구조		
	절대평가 과목	영어, 한국사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수능EBS연계율	70%	50% (간접연계확대)		
대입전형 구조 개편	적성고사전형	유지	적성고사 폐지		
	논술, 특기자전형	폐지 유도	폐지 유도		
	정시 전형 확대		서울소재 16개 대학 정시 확대 유도	서울소재 16개 대학 정시 40% 이상	
	약대 전환		첫 시행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	4개 문항 5,000자	3개 문항 3,100자		폐지
	교사추천서	유지	폐지		
	고교프로파일	폐지			
	서류 블라인드 평가	시행			

서울소재 주요대학, 정시 확대

2022학년도부터 통합 6년제 약대 모집이 실시된다. 현재 37개 약대가 모두 통합 6년제로 전환할 경우 약대 정원은 총 1,753명에 이른다. 약대의 선호도가 높은 만큼 2022학년도 이후 대입에서 약대 선발이 관련 학과의 경쟁률과 입시에 큰 영향력을 미칠 전망이다.

그리고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 선발비율이 높았던 서울소재 16개 대학(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시립대·서울대·서울여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은 2022학년도부터 정시를 확대해 2023학년도에는 정시에서 40% 인원을 상향 선발할 계획이다. 재수생이나 자사고 등 정시 확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주요 대학 입학이 더 수월해질 수 있다.

또한 2022학년도부터 중위권 학생들의 관심이 많은 적성고사 전형이 폐지되며, 논술과 특기자전형은 축소될 전망이다. 그래서 대입 전형은 장기적으로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으로 단순화 될 방침이다. 사회적 배려



약력 박정훈

- 입시투데이 대표
- 즐거운학교 진학 컨설턴트
- 네이버 입시스토리 카페 운영자
- 틈매경 입시칼럼니스트
- 저서 「입시는 전략이다」, 「서울대 명문대 입시전략」, 「학생부종합전형사용설명서」 등

대상자를 위한 사회통합전형도 도입되어 입학 총원의 10% 이상 선발이 의무화된다. 지역 균형 선발은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10% 이상을 선발하되 교과 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방식을 권고한다.

2021년 이후 고교 프로파일 폐지, 블라인드 서류평가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1학년도부터 고교 프로파일이 폐지되고, 서류평가에서는 블라인드 평가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학들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집요강에 표준 양식 공개를 의무화하고, 평가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1인당 적정 수준의 평가 시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평가 세부 단계에서도 다수 위원이 평가해야 하며, 서류 평가 시에는 전임사정관 1인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대학별로 전형 유형마다 고교유형과 지역별 선발 결과 등을 공시할 예정이다.

달라지는 학교생활기록부

1) 학생부 주요 항목 내 비교과 영역(요소) 개선 현황

학교생활기록부는 기재 사항이 축소되고, 학년도에 따라 대입에 미반영 되는 등 변화가 많다.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자료가 축소된다는 점에서 주요 대학들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기준과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구분	2021학년도 대입 (현 고2)	2022~23학년도 대입 (현 중3~고1)	2024학년도 대입 (현 중2)	
교과 세특	과목당 500자	과목당 50자 방과후 학교 미기재	과목당 500자 영재·발명교육 실적 대입 미반영	
종합의견	500자	500자	500자	
비교과 영역	수상경력	모든 교내수상	학기당 1건 (3년간 6건)	대입 미반영
	자율활동	500자	500자	500자
	동아리활동	500자	500자 자율동아리 연간 1개(30자)만 기재	500자 자율동아리 대입 미반영
	봉사활동	500자	특기사항미기재	개인봉사 대입 미반영
	진로활동	700자	700자 진로희망 대입 미반영	유지
	독서활동	도서명과 저자	도서명과 저자	대입 미반영



2022학년도부터
적성고사 전형이
폐지되며,
논술과 특기자전형
또한 축소될
전망이다.



2)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사항

올해 2월 3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는 지난해 발표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의 흐름을 이어오면서 세부항목별로 구체적인 지침이 담겨 있다.

학생부 고교 정보 블라인드 처리 항목 구체화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시 고교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특정 항목 이외에 재학 중인 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수 없다.

셀프 학생부 금지 및 모든 학생의 교과 세특 입력

'학생부에는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학생부 대필을 금지한다. 학교교육 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는 학생부 기재 시 활용할 수 있으며, 자료의 형태는 동료평가서·자기평가서·수행평가 결과물·소감문·독후감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제한한다.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과제형 수행평가가 금지되며, 수행평가는 교과 수업 시간에 담당교사가 학습자들의 과제와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로 바뀐다. ①



학교 맞춤형 진학 프로그램

매년 달라지는 대학입시, 고교학점제 시행 대비 등 변화하는 진학환경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한다. 학생부 스토리 강화,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준비법 등 체계적으로 진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프로그램 문의

즐거운학교 | 070-8282-0140 | www.njoyschoo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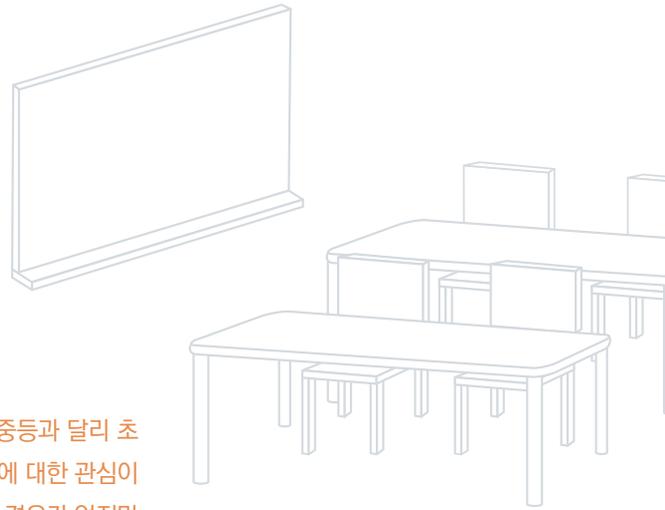
아이들의 삶을 담아내는 교실 공간 만들기

글. 황정희 섬강초등학교 선생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3월이면 교실 환경 심사라는 것이 있었다. 중등과 달리 초등은 교실에서 교사가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교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이다. 지금에야 교실 공간을 심사나 비교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없지만 여전히 3월 새로운 교실을 마주한 선생님들의 고민은 어떻게 교실을 꾸며야 하는가로 시작되곤 한다. 그러던 중 교실은 교사만의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공간인데 왜 아이들에게는 어떤 교실의 모습을 원하는지 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교실을 교사가 어떻게 꾸며야 하는지 고민하기 전에 아이들이 살아갈 교실 공간을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면 어떨까? 교실에 새로운 책상을 구입하거나 가구를 바꾸는 것처럼 큰 예산을 들일 수는 없다. 하지만 아이들이 교실에서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함께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다.

자유롭게 대화하다 실현 가능한 이야기로 교실 상상하기

처음 할 일은 아이들에게 묻는 것이다. 아이들이 원하는 교실의 모습은 무엇인





지 어떤 교실이었던 좋을지 이야기를 나누어보자. 이때 처음부터 원하는 물건을 중심으로 대화를 이끌어가기보다는 교실에서 하고 싶은 일이나 상황으로 이야기를 출발해야 한다.

만약 “우리 교실에 어떤 물건이 있으면 좋을까요?”라고 아이들에게 묻는다면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게임기요.”, “침대요.”, “세탁기요.”, “트램펄린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물건이야 예산만 충분하다면 그냥 구입만 하면 해결된다. 하지만 아이들과 교실 공간에 대한 상상을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교실 공간에서 하고 싶은 일과 진정한 욕구를 함께 고민해 보기 위해서다. “게임기가 왜 있었으면 좋겠어?” “쉬는 시간에 재미있게 놀려고요. 미세먼지 때문에 못 나가니까 게임기를 하면 좋겠어요.”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함께 할 놀이감이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교실에 구입해주었으면 하는 물건보다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집중해보아야 한다. 질문을 바꿔보자.

나는 우리 교실이 ~ 했으면 좋겠다.
나는 우리 교실이 ~ 해서 불만이다.

아이들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나는 우리 교실에 앉아서 이야기 나눌 곳이 있으면 좋겠다.

나는 우리 교실에 가방을 넣을 수 있는 큰 사물함이 있으면 좋겠다.

나는 우리 교실 벽에 예쁜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좋겠다.

나는 우리 교실에서 동물을 키웠으면 좋겠다.

나는 우리 교실에서 만화책을 많이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우리 교실이 쉬는 시간에 너무 시끄러워서 불만이다.

나는 우리 교실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없어서 불만이다.

나는 우리 교실에서 누울 수 없어서 불만이다.



약력 황정희

- 現 원주 삼강초등학교 교사
- 前 인디스쿨 대표 운영자

교실에 대한 상상은 처음에는 현실적 제약에 대한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것이 좋다. 자유로운 상상 속에서 때로 아이들은 전혀 실현 불가

능한 꿈을 꾸기도 하지만 그런 영똥한 바람 속에 아이들의 교실에 대한 고민과 생각이 숨어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조금씩 현실 가능한 이야기로 범위를 줄여가는 것이다.

아이들의 바람과 불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교실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다. 단순하게 나 혼자 사용할 물건이나 공간에 대한 생각에 머물지 않도록 공간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집중하게 해야 한다. 교실이라는 공간은 나 혼자 머무는 곳이 아니고, 학급의 다른 친구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삶을 나누는 공간이다. 때문에 교실 공간에 관한 이야기의 중심은 나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의 공간을 중심으로 생각해보도록 안내하도록 하자. 안 되는 것, 불가능한 것에 대한 제약 대신 자유롭게 상상하고 이야기하도록 열어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가상의 공간을 배치하면서 교실 둘러보기

교실 상상하기가 아이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마음껏 펼치는 것에 집중했다면 교실 둘러보기는 교실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바라보는 일이다. 교실의 위치나 교실 속 가구는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아이들 스스로 원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변화를 주어야 할지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교실을 직접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편안한 교실이었으면 좋겠다는 아이들이 많이 원하는 소파·침대·바닥매트와 같은 소품들이 교실의 어디쯤 놓여야 할지 생각해보도록 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침대나 소파의 크기를 살펴보고 실제 교실에 가구가 놓이려면 어떻게 공간을 배치해야 할지 고민해보는 것이다. 아이들은 교실의 크기도 확인해야 하고, 교실 빈 공간에 원하는 가구를 놓을 수 있을지 줄자로 길어도 재보고 높이도 확인해볼 수 있다. 실제 가구를 교실에 구입해줄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가상의 공간을 배치해보는 것도 괜찮다. 라인테이프가 가구가 놓일 위치를 교실에 그려볼 수도 있고, 종이상자로 축소판 교실 모형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앞에서 마음껏 상상했던 것들이 실제 교실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고민해보는 것이다.

아이들이 원하는 물건이나 가구로 교실 디자인하기

이런 가상의 상황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아이들과 함께 직접 교실을 변화시켜보는 것이다. 이때는 학급운영비를 얼마까지 아이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 예산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면 좋다. 5만원 또는 1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다면 그 예산으로 교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것이다. 교실에 예쁜 그림이나 벽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많은 아이들이 찬성했다면 큰 전지등으로 교실 벽





교실 상상하기는
아이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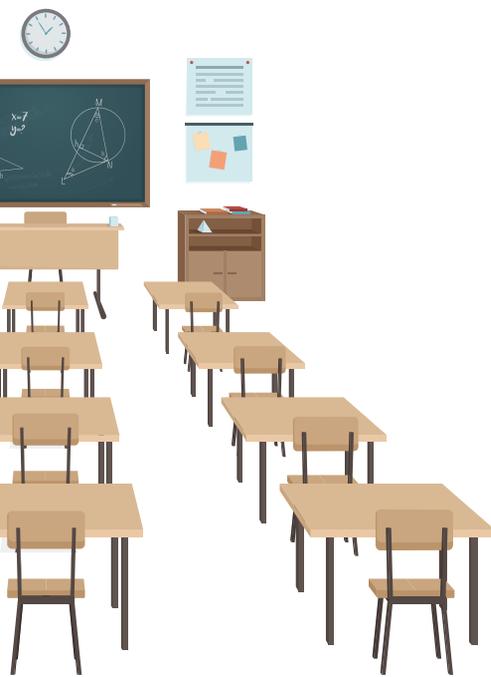
면을 함께 꾸며볼 수도 있고, 바닥에 앉아서 이야기 나누는 편안한 공간을 원하는 아이들이 많다면 교실 공간에 놓을 수 있는 바닥매트의 크기나 가격을 함께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교실에 있었으면 하는 물건이나 가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 물건이나 가구를 원했던 이유를 함께 찾아가는 것이다. 동물을 키우고 싶다는 아이가 많았다면 주어진 교실 환경이나 예산 속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활동적인 동물을 교실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키울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보자. 강아지나 고양이 대신 무언가 교실에서 기른다는 것에 의미를 둔다면 사슴벌레나 다육식물처럼 생명이 있는 것을 함께 돌보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교실은 배움의 공간이면서 삶의 공간

교실이라는 곳이 단순한 배움의 공간만이 아니라 삶의 공간이라는 생각이다. 초등학교 아이들은 학교에 공부를 하러온다는 개념과 함께 더 큰 의미는 친구들과 놀러오는 것,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살러오는 것이다. 아이들의 삶이 담겨 있지 않은 배움은 아이들에게 큰 의미를 줄 수 없다. 교실 공간을 함께 고민하는 것은 교실에 값비싼 가구를 들여놓거나 교실 리모델링처럼 거창한 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교실이라는 공간이 아이들이 함께 배우고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작은 변화일 것이다. 출석번호대로 사물함 자리를 정하는 대신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고민해보거나 기존에 있던 책장이나 게시판의 위치를 바꾸는 것처럼 교실마다 가능한 것부터 조금씩 시작해볼 수 있다.

학기 초 한 번의 활동으로 교실을 모두 바꿔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교실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불편한 것, 더 좋아질 수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고민하는 게 교실에 대한 새로운 생각의 출발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욕심을 내 본다면 교실 공간에 대한 이야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반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학교를 공간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하면 좋겠다. 다른 반이나 다른 학년 친구들을 인터뷰하며 학교 공간에 대한 기대와 불만을 이야기하며 교실 공간을 넘어 학교 공간으로 이야기를 확대하는 것이다. ①





서먹하던 새 학기 분위기가 어느새 "들썩들썩" 감정카드 놀이

글. 김기정 연성중학교 선생님

새 학기는 일 년 중 가장 조용하다. 몇 명을 빼고는 대부분 잘 모르는 친구들이고, 처음 보는 선생님과 새로운 학급 장소이기 때문에 서로 서먹하면서도 긴장되어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알아갈 수 있는 좋은 놀이가 있다. 몇 년간 학기 초에 사용하고 있는데, 나름 교육적 효과가 좋아 소개하고자 한다. 이 놀이는 감정 카드 놀이다.

4명씩 8모둠으로, 3단계 감정 카드 놀이

4명이 책상을 붙여 한 모둠을 만든다. 우리 반은 보통 32명이었기 때문에 8모둠 정도가 나온다. 모둠별로 감정 카드를 나눠준다. 놀이는 3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 현재 내 감정에 맞는 단어 골라 이야기하기

1단계는 감정 단어가 보이게 책상 위에 펼쳐 놓고 학생들이 보게 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신의 감정(기분)에 해당하는 단어를 하나 골라 가져가라고 한다. 모둠원이 모두 카드 한 장씩을 가져가면 순서를 정하고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며 말하기를 한다. 가져간 카드를 보여주며 왜 그런 감정이 드는지 이유를 이야기한다. 카드를 주고 활동을 제시하면 어색하지 않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감정을 그냥 말하기는 쉽지 않을 뿐더러 말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런데 카드를 이용하면 활동의 한 부분으로 인식해서인지 거부감 없이 과제를 하게 된다. 큰 부담 없이 지금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2단계: 최근 가장 많았던 감정 3장 골라 말하기

2단계는 최근 자신의 감정 중에서 가장 많았던 것 3장을 찾으라고 한다. 이번에는 상대방에게 단어가 보이지 않게 조용히 가져가라고 한다. 3장 중 하나를 선택해 이야기하되 감정 단어를 말하지 않고 사진, 사례를 들어 스토리텔링하면 친구들이 어떤 감정일지 알아맞히는 놀이다. 이렇게 4명이 3회를 돌아가며 이야기





5



6

1, 2. 감정 카드.

3. 1단계: 현재 내 감정에 맞는 단어 골라 이야기하기.
4. 2단계: 최근 가장 많았던 감정 3장 골라 말하기.
- 5, 6. 카드를 쌓아놓고 그중 하나를 뽑아 친구들이 맞출 수 있도록 설명하기.



약력 김기정

- 現 연성중학교 교사
- 경기도토론연구회, 그림책사립교사모임, 진로교육연구회 연구위원
- 미래세대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자문위원
- 경기도교육연수원 진로 그림책 디자인 수업 운영
- 저서 「그림책 학습운영」 (공저)

하고 맞춘다. 감정 단어를 맞춘 사람이 카드를 가져가고 가장 많이 모은 사람은 최고의 공감 능력자로 칭찬을 받는다. 의외로 학생들은 부끄러워하거나 어색해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이 감정 단어를 맞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2단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의 성격·상태·특징 등을 알게 된다. 그 친구의 감정 상태를 알고 이해해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에 대한 편견이 깨지기도 한다.

3단계: 주변에서 본 것을 말해서 감정 단어를 맞추기

3단계는 감정 카드를 모아서 책상 위에 쌓아 놓는다. 단 감정 단어가 보이지 않게 뒷면으로 더미를 만들어 쌓는다. 모둠에서 첫 번째 순서에 해당하는 학생이 카드 더미의 맨 위에 있는 카드를 가져가서 감정 카드의 단어를 확인한다. 감정 단어를 말하지 않고 이야기(스토리텔링)를 해서 다른 모둠 친구들이 그 감정 단어를 맞추는 놀이다. 1·2단계는 자신의 스토리를 말하는 놀이라면 3단계는 자신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본 것 등을 말해서 감정 단어를 맞추는 놀이다. 감정 단어를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느끼는 순간이다. 또한 잘 사용하지 않던 감정 단어가 많이 있다는 것에 놀라는 순간이다. 설명하고 맞추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또는 취미·성향 등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3단계 후 모둠별 대항전하면 "한 번 더" 외쳐

3단계를 가볍게 한 번 정도 했다 싶으면 본격적으로 모둠별 대항전을 해보자. 이때 시간을 설정해야 한다. 시간은 5분! 5분 동안 감정 단어를 가장 많이 맞춘 팀에게 소정의 선물(사탕)을 주거나 담임 쿠폰 이벤트를 하면 매우 적극적으로 놀이에 빠져든다. 시간을 짧게 설정하고 해야 긴박감 넘치는 놀이가 된다. 모듬원이 순서대로 돌아가며 카드 더미에 있는 단어를 가져가서 설명할 때 패스할 수 있는 기회를 3회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단계 놀이는 1회로 만족하지 않고 "한 번 더"를 외칠 때가 많다. 신기할 정도로 학생들이 좋아한다. 2회 이상 할 경우 단어에 익숙해져 요령이 생기기 때문에 설명을 제대로 하는 규칙을 정하는 것도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구체적인 내용 또는 사례를 반드시 넣어 설명하기, 전 타임에 말한 사례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기 등.

감정 카드 놀이는 모듬원의 협력을 끌어내는 데 '굿'

감정 카드 놀이는 학급 운영 놀이로도 좋지만 교과에서 모듬 수업을 하기 전에 모듬원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활동으로도 좋다. 그리고 5월에는 가정의 달 행사로 감정 카드를 집으로 보내서 부모님과 함께하기를 한 적도 있다. 청소년기 부모님과 대화하기 힘들어할 때 과제를 주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

보고 만지고 생각하다 "아하!" 깨닫는 수학

체험으로 익히는 수학기반 융합교육

글. 김반지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전복수학체험센터 파견교사

'꼼짝 마' 자세로 책상 앞에 가만히 앉아 종이와 연필로 수학 문제만 풀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수학교 움직임이며 놀고, 체험하며 신나게 하는 시대이다. 어떻게 해야 수학이 재미있어질까? 재미있는 수학이 가능한 할까? 수학을 체험하며 몸으로 익혀보는 수학체험이 대세인 시대, 수학체험활동 실천사례를 공유한다.

수학을 체험한다는 것?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수학은 어렵고 두려움을 주는 과목이라는 인상이 강하다. 소위 '수포자'라는 말을 학생들 입에서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어렵고 지겹지만 한 수학을 언제까지고 그대로 방치해 둘 수만은 없다.

직접 몸을 움직여 해보는 게임이나 퍼즐, 만들기 등의 체험활동을 수학과 결부시켜 참여하고 있는 활동에 재미를 느끼고, 그 중심에 있는 수학을 포기하지 않도록 구성해주는 것이 바로 수학 체험활동이다. 수학을 함께 즐기고, 직접 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수학에 흥미를 느끼고,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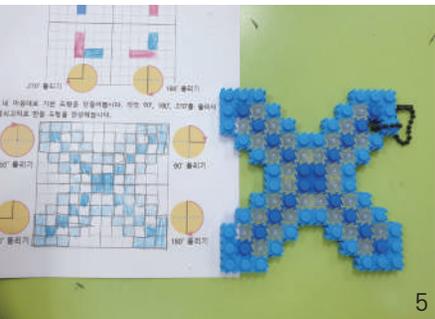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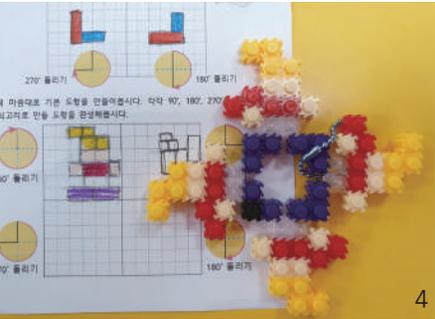
이를 통해 수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문제를 풀고 해결하며 응용력을 확장시키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수학 체험활동의 역할이다. 생활 곳곳에 녹아 있는 수학을 찾아보고, 이럴 때 수학을 사용한다는 것을 몸으로 체



약력 김반지

- 전복수학체험센터 파견교사
- 역량중심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위원
- 창의교육 실천 교사연구회 연구책임자
- 창의융합교육 선도학교 우수학교 선정
- 소프트웨어교육 선도학교 우수 운영
- 게임리터러리 교사연구회 우수연구회 선정
- 전복 수학창의캠프 운영 위원
- 수학산책 프로그램 자료 편찬위원





1. 가족과 함께하는 수학체험활동.
2. 수학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아이들.
3. 각뿔 선물상자 만들기.
- 4, 5. 평면도형 돌리기.

험하며 경험해봄으로써 수학을 이전보다 재미있고 흥미롭게 느낄 수 있으며, 수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자발적인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놀면서 수학하면 시너지 효과 UP!

초등학교 4학년 '삼각자를 이용해 수선과 평행선을 그릴 수 있다'라는 성취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직접 삼각자를 활용해 수선과 평행선을 작도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놀이감을 만들며 수학을 활용한다. 4학년 과학 교과서의 거울의 특징을 알아보고 그것을 활용해보는 차시와 결합하여 거울을 사용한 수직평행 반사상자를 만들어본다. 수학책·수학익힘책의 문제를 풀기 위해 수선과 평행선을 그려 넣는 것이 아닌 나만의 반사상자 놀이감을 만들기 위해 수학을 사용해보는 것이다. 또 6학년 각뿔과 각기둥을 공부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각뿔·각기둥 모양을 활용할 수 있는지 예쁜 선물상자를 만들어 친구들과 마음을 나누며 생활 속에 수학을 녹여보기도 한다.

수학체험센터에서 근무하며 이제 막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친구들에게 4학년 때 배웠던 평면도형의 이동에 대한 체험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었다. 평면도형을 이동시키는 여러 방법을 살펴보고 도형을 90°, 180°, 270°, 360°로 돌려본 뒤, 블록으로 열쇠고리를 만들어보는 활동이었다. 한 학생이 "아! 이제 알겠네!"라고 외치는 모습에 놀랐고, 고마웠던 기억이 난다. 분명히 잘 배웠고, 알고 있었을 사실이지만 체험을 통해 스스로에게 다시 새기는 과정이 일어난 것이다. 이와 같은 계기를 통해 수학을 다시 발견하고 깨닫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점에 수학 체험활동의 묘미가 있는 것 같다.

수학을 중심에 둔 융합교육이 답이다

수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학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선생님들이 많다. 나 또한 그러했다. 그런데 사실 수학은 많은 사람들이 의사소통하기 위해 서로 약속하기 시작한 데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당연하게 여기고 지내왔던 것들이 수학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우리가 필요해서, 생활 속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는 수학을 발견해보는 것부터 함께 시작해보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흥미를 보이고 가장 재미있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이들에게 물



어 본다면 열에 여덟은 게임을 꼽는다. 이 게임을 수학수업에 활용해보면 어떤
 까? 수와 친숙해지기 위한 숫자게임이나 해당 차시에 적합한 보드게임 등을 도입
 하여 활용해보면서 재미를 느끼고 흥미로워한다면 수학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
 지 않을까? 수학문제를 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해결하고 실마리를 얻어
 비밀 상자를 여는 수학 방탈출 게임을 적용해보니 아이들은 자신이 수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빠져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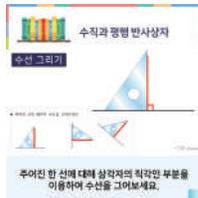
수학시간에 배우는 원리를 토대로 다양한 교과와 융합하여 프로젝트 학습을 진
 행하면 수학수업이 더욱 풍부해진다. 수학적 원리 이해와 표현력을 바탕으로 하
 는 ‘나의 인생 그래프’, ‘나만의 수학시계’, ‘칠교 청사초롱’, ‘수학 올림픽’, ‘협력! 수
 학 컵 쌓기’ 등의 다양한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아이들의 행동에 자연스럽게 수
 학이 묻어난다.

배운 내용을 몸을 움직이면서 게임으로 확인해보고, 차시의 내용이 담긴 생활소
 품이나 장난감 등을 만들어 실생활과 연계시키는 등의 다양한 체험중심 수학수
 업으로 아이들에게 수학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다. ㉮



수학 방탈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

직접 개발한 수학기반 융합교육 콘텐츠의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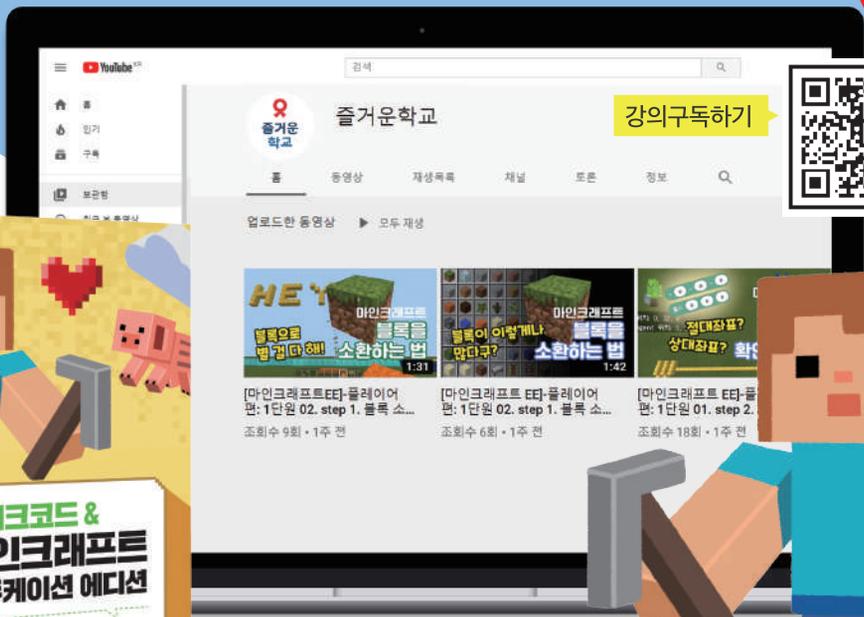
더 많은 콘텐츠 알아보기



선을 넘는 유튜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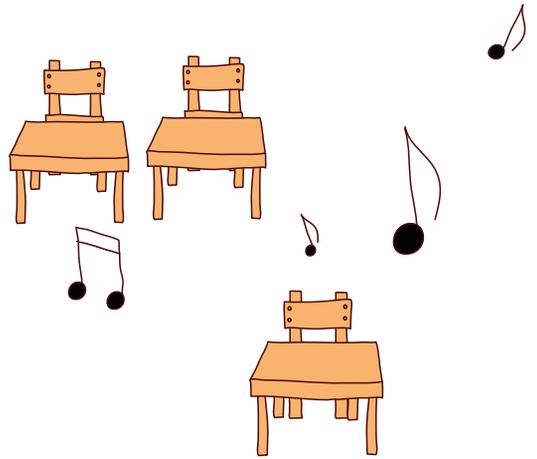
마인크래프트가 교실로 들어왔다!

학생들의 #취향저격 #최애게임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에디션'으로
 코딩이 뭔지 차근차근 알려준다!
 유튜브로 + 무료로 + 제대로!
 현직 교사들이 만든 진짜 수업 콘텐츠!



교재도 있어요!
 라이선스 + 교재 구입 문의

'열정기백쌤'이 추천하는 학기 초 즐거운 교실 놀이



글. 성기백 서울동구로초등학교 선생님

3월 신학기가 시작되면 교실은 반가움과 긴장감이 교차한다. 새로운 교실에 들어갔는데 아는 친구들이 있으면 반갑고, 선생님을 처음 보면 긴장하게 마련이다. 교사는 학기 초에 학생들의 어색함을 풀어주고, 서로 협동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교실 놀이다. 학생들끼리 서먹한 관계를 풀어주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고 싶을 때,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선생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을 때 교실 놀이를 하면 좋다. 학기 초에 아이들과 함께하면 좋은 교실 놀이를 소개한다.

어색함을 풀어주는 교실 놀이

1) 스타와 팬



당신이 좋아하는 스타를 만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이 활동은 가위바위보를 통해 이긴 사람은 스타가 되고, 진 사람은 팬이 되는 게임이다. 그러면서 기차놀이와 같이 이긴 사람 뒤에 진 사람이 계속 붙으며 '스타'의 이름을 연호하는 게임으로, 이 활동을 통해 학급 분위기를 띄우고,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며 뽀로로 이름을 익힐 수 있다.

2) 손님 모셔 오기



'손님 모셔 오기'는 학기 초에 서로의 자리를 섞으며 친해질 수 있는 활동이다. 빈 의자 양쪽에 있는 친구들이 손님을 모셔 오며 신체 활동을 경험하게 된다. 노래 한 곡을 틀고 그 노래가 끝날 때 자리가 비어 있는 두 사람이 벌칙을 받게 되는 것으로,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손을 잡으며, 자리가 섞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2학점] 교사와 학생
모두 행복한 실내 체육 수업



우리 반을 하나 되게 하는 교실 놀이

1) 사랑의 배터리 게임



우리 반 아이들을 협동시키는 데 제일 좋은 구도가 교사 대 학생의 경쟁 구도다. 교사가 일종의 악역 역할을 하고, 학생들은 서로 도와주는 것이다. 그런 게임으로 좋은 것이 '사랑의 배터리 게임'이다. 이 활동은 자기 신체에 배터리(학용품)를 올려놓고 돌아다니면, 술래가 배터리를 떨어뜨리고 다른 친구들이 배터리가 빠진 친구들의 배터리를 주워 다시 넣어주는 활동이다. 위기의 순간 친구가 나를 도와주는 경험을 할 수 있다.

2) 돌려 돌려 공!



이 활동은 원을 만들고 팔을 앞으로 엇갈려 뻗어 맞잡은 다음, 공을 돌리는 활동이다. 공이 3바퀴 도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측정하며 학급 세우기를 할 수 있는 활동이다. 공이 중간에 떨어지면 아무나 주워 떨어진 친구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렇게 계속 시간 단축 활동을 하며 우리 반 친구들이 함께 협동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다.

교사와 학생들의 래포가 형성되는 교실 놀이

교사가 학생들에게 학기 초 간단한 교실 놀이를 해주면 학급 분위기가 즐거워진다. 교사는 그 모습에 흐뭇하고, 학생들은 선생님을 좋아하고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교사와 학생들의 래포(Rapport-친밀 관계)가 형성되는 좋은 계기가 교실 놀이에 있다고 생각한다. 신학기 학생들과 다양한 교실 놀이를 함께하며 친밀감을 높여보면 어떨까. ①



약력 성기백

- 現 서울동구초등학교 교사
- 유튜브 채널 '열정기백쌤' 운영
- 전국 유튜브 운영 교사들의 모임 '유선생' 활동
- 티처런(체육 교육 공동체) 핵심교사 활동
- ADE(Apple Distinguished Educator, 애플 우수교사) 활동
- 미래교실네트워크(거꾸로교실, 사상최대수업프로젝트) 주빈교사 활동
- 학교체육진흥회 체육모델 분과, 저학년 체육활동 활성화 분과 참여
- 2015 개정교육과정 체육과 교과서 집필(동아출판)
- 2014 서울시 초등학교 체육수업연구대회 2등급 수상

내가 만드는 교실 속 웹툰 제작소

경기도 지식(GSEEK) 자유학년제 콘텐츠 시범수업 사례

글. 최현주 광명중학교 국어선생님

경기도는 3월 9일 '지식(GSEEK)'이라는 온라인평생학습사이트를 통해 중학교 자유학년제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 지난해 1월부터 경기도 내 교사와 학생 및 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유학년제 콘텐츠 방향을 수립하고, 보다 활용성 높은 콘텐츠 개발에 집중해왔다. 분야별 교사·전문가 그룹을 운영하며 자유학년제 교과수업과 융합·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했다. 온라인교육 콘텐츠의 경우 학생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영상촬영 전략을 적용했으며, 학교현장에서 온·오프라인 연계학습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여기서 개발한 과정 중 '내가 만드는 교실 속 웹툰 제작소'라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시범 수업을 진행해보았다. 실제 학교수업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소개한다.

수업 부담 줄이기 1 - 학생 활동지·PPT·영상 콘텐츠

단계별로 잘 정리된 학생용 활동지와 PPT는 웹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교사도 학생들과 함께 배우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일등 공신이었다. 학생용 활동지는 만화 그리기의 기본 연습부터 웹툰 제작을 위한 기본을 단계별로 익힐 수 있도록 짜여 있어 자칫 학생들이 힘들어하거나 지루해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었다. 영상 콘텐츠는 교사의 수업 안내를 뒷받침하고, 학생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활용도가 매우 높았다.



경기도 지식(GSEEK) 자유학년제 서비스

지식(GSEEK)은 외국어·자격증·인문소양·자기개발 등 1,200여 개 온라인강좌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서비스다. 금년 3월 부서는 학교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자유학년제 수업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수업용교재 및 온라인교육 콘텐츠를 신규로 개설한다. 지식홈페이지(www.gseek.kr/teenager, 청소년교육분야)에 접속하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콘텐츠 다운로드 및 학습이 가능하다.

수업 부담 줄이기 2 - 교수학습지도안 평가지

교사에게 자신의 전공 교과가 아닌 주제선택이나 동아리 수업의 수업계획서·평가계획서·교수학습지도안의 작성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다. 이번 시범 수업 준비에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교수학습지도안을 비롯한 수업 교재가 충실하게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주제선택 수업에서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평가계획을 작성하는 일은 매우 힘들다. 이번 수업에서는 전문가가 만든 성취기준에 맞춘 평가계획과 평가지 등을 미리 받아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수업 부담 줄이기 3 - 역할 나누기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깨달은 점은 모든 일을 교사 개인이 해결하려 할 경우 부담의 악순환만 계속된다는 것이다. 자유학년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비교과 과목의 경우 전문가가 아닌 이상 교사가 능숙하게 혼자서 수업 준비를 할 수 없다. 앞으로 다양하게 전개될 자유학년제의 수업은 각 분야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현재 많은 영상 콘텐츠가 존재하지만, 학교의 수업 형태에 맞게 지도계획과 평가계획, 각 시간에 활용될 학생용 활동지와 PPT 같은 수업 교재가 하나의 세트로 온전하게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것들은 많지 않다. 이제는 교사·학생·학부모와 다양한 전문가 집단, 그리고 이를 조화롭게 만나게 해주는 교육 콘텐츠의 역할 나누기를 통해 수업에 대한 부담보다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콘텐츠가 필요하다.

부담을 넘어 모두에게 기회가 되는 수업

기성세대는 요즘 아이들의 생각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기성세대의 기준에서 아이들을 보는 것 자체가 오류라는 것을 문득 깨닫곤 한다. 아예 생각의 출발점부터가 다른 아이들. 생각하는 방식과 소통 방식,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아이들이다. 하지만 학교는 존재하고 교사와 아이들은 학교에서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 이때 수업마저 기성세대의 기준에 맞춰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수업 시간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으며, 서로에게 큰 부담만 남게 될 것이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 전문가 그리고 이들을 지지해주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호기심과 꿈을 키우게 도와주는 양질의 교육 콘텐츠들. 이러한 역할 나눔이 조화를 이룰 때 수업은 부담의 장보다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 이번 시범수업은 희망을 키우기 위한 시도였다. ①



약력 최현주

- 現 경기도 광명중학교 국어교사
- 2018년 제4회 미래교육청조상 미래창의수업 부문 장려상

실리콘밸리에 부는 AI 광풍

AI 주도권 전쟁터, 실리콘밸리를 가다

글. 전지연 전자신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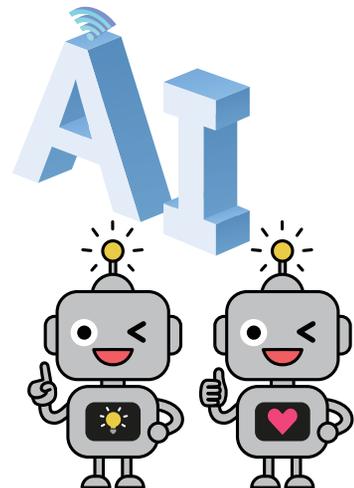
“젊은이들이 원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스탠퍼드대 근처 블루보틀 건물 2층에 인공지능(AI) 연구원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분위기 좋은 건물에 있어야 인재 확보가 더 쉽거든요.”

미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위에 선정된 시스코. 이런 시스코도 AI 인재 영입에 결코 손을 놓을 수 없다.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시스코 본사에서 만난 김민세 시스코 테크니컬 엔지니어링 시니어 매니저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글로벌 기업은 모두 AI 엔지니어를 영입하는 데 혈안”이라며, “AI 주도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리콘밸리의 화두, AI

실리콘밸리에는 AI 열풍이 불고 있다. 실리콘밸리에서 만난 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부터 글로벌 기업 엔지니어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AI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글·아마존·애플·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은 음성인식·영상인식·자율주행차 등 AI 서비스를 공격적으로 연구·개발 중이다. 김강년 오라클 엔지니어는 “실리콘밸리에는 AI 광풍이 불고 있다”면서 “구글·페이스북·오라클 등 글로벌 기업에서는 AI가 핵심기술”이라고 말했다. 스타트업도 AI 서비스 개발에 뛰어 들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2018년 실리콘밸리에 있는 한국인이 창업한 스타트업은 약 45개로, 진출 분야는 소프트웨어·솔루션·AI·빅데이터·증강현실(AR)·게임 등에 집중됐다. 창업자 대부분이 공대 출신 개발자다.

2017년 실리콘밸리에 등록된 신규 특허 중 컴퓨터, 데이터처리 및 정보저장 부문과 통신 부문의 비중이 가장 높다. 실리콘밸리 기업과 연관된 상





4

- 1, 2.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구글 전경.
3. 미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위에 선정된 시스코 본사의 내부 모습.
4. 시놉시스 본사 건물.



약력 전지연

- 전자신문 교육 담당 기자
- 에듀테크 산업과 대학 동향 취재

위 10건의 인수합병(M&A) 가운데 절반이 소프트웨어 산업과 연관됐다.

AI와 연관성이 떨어졌던 기업도 AI 분야를 강화하고 있다. 시스코는 전통적인 네트워크 장비 제조 기업이었지만 최근 AI-클라우드·보안 등 SW를 강화하고 있다. 시스코는 하드웨어 엔지니어보다 SW 엔지니어를 훨씬 많이 고용하고 있다. 반도체 기업 시놉시스 또한 AI 전쟁에 뛰어들었다. 버크하드 훈케 시놉시스 자동차 부문 부사장은 “시놉시스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AI를 활용한다”면서 “SW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AI가 자율주행차 완성을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놉시스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리 및 보안취약점 분석 솔루션 기업인 ‘블랙덱소프트웨어’를 인수하는 등 SW 분야를 강화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또 다른 힘, 산학협력

실리콘밸리와 우리나라의 차이는 무엇일까. 사실 실리콘밸리와 우리나라 모두 AI가 대세다. 하지만 실리콘밸리에서는 대학 1학년이 스타트업·글로벌 기업에서 인턴을 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대학 4학년이 돼서야 인턴을 하는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다.

실리콘밸리에서 만난 구글 연구원은 “박사 과정 인턴보다 학부 1학년 인턴이 더 많은 아이디어와 열정을 갖고 있다”며, “구글 연구원인 나도 대학 1학년생 인턴에게 많이 배우기 때문에 1학년 인턴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만난 엔지니어는 한결같이 학부생 인턴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학부 인턴들과 진행한다. 기술에만 빠지기 쉬운 연구원과 달리 인턴은 생각하지도 못한 서비스의 아이디어를 내는 경우가 많다.

대학생에게 전문기술을 가르치는 과정이 있지만, 비용과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하는 최고경영자(CEO) 또한 없었다. 실리콘밸리에서 만난 다수의 스타트업 CEO는 대학생 인턴을 왜 채용하는지 묻는 기자를 이상한 듯이 바라봤다. 산학협력은 실리콘밸리의 자연스러운 문화였다.

대학생은 인턴을 통해 빠르게 기업 실무를 경험할 수 있다. 빠르게 본인이 원하는 직무를 탐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리콘밸리 소재 스타트업에서 인턴을 하고 있는 김윤성 성균관대 학생은 “실리콘밸리에서 인턴을 하면서 매력적인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자연스러운 대학생 인턴문화는 글로벌 IT 산업을 선도하는 실리콘밸리만의 ‘힘’이었다. ⑦



인공지능(AI) 수업자료 큐레이션 서비스 이제는 수업도 큐레이션한다

글. 에듀테크연구소 인공지능팀

현대사회는 정보 과잉의 시대다. 각종 미디어에서 생산되는 정보의 양이 방대해져 검색만으로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려워졌고, 그마저도 검색된 결과를 검증하는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데이터 스모그(Data Smog, 정보 과잉)로 인해 질적으로 낮은 정보들이 유포되어 소비자를 정보과부하에 걸리게 만든다. 도서 『정보 과잉 시대의 돌파구, 큐레이션』의 저자 스티븐 로젠바움(Steven Rosenbaum)은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 콘텐츠를 걸러주는 인간 필터에 주목하라”고 말했다. 검색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것보다 인간이라는 필터로 한번 걸러진 정보, 그 정보에 가치를 더해 사람들에게 다시 확산되고 공유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다. 테크빌교육도 양질의 수업자료를 식별하고, 이런 자료를 통해 교사들이 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그럼 테크빌교육의 ‘AI 수업자료 큐레이션 서비스’의 비전에 대해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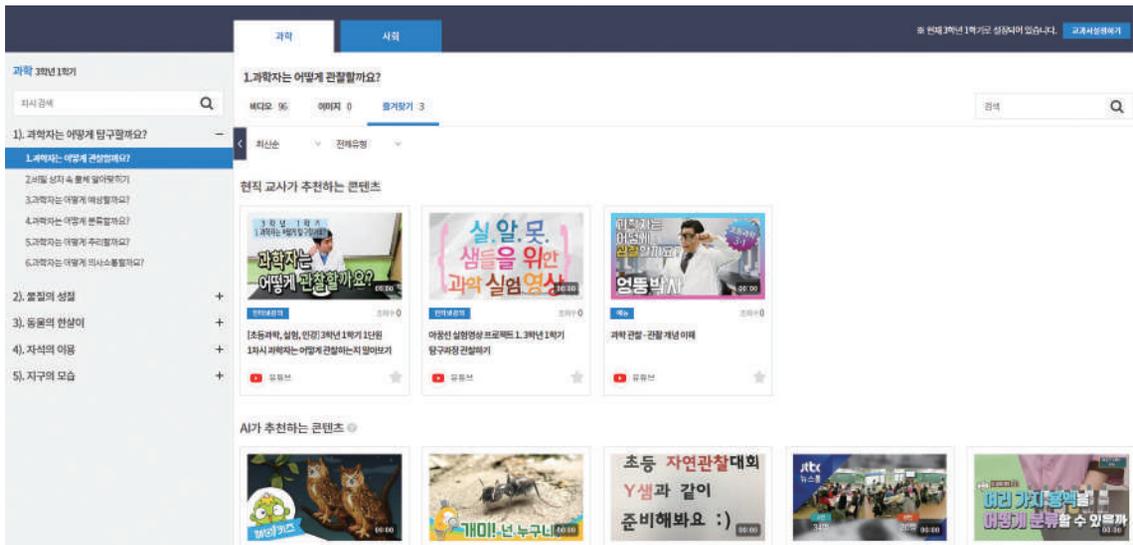


‘AI 수업자료 큐레이션 서비스’는 수업 준비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수많은 데이터를 선별해서 제공하는 것이 서비스의 핵심이다.



현직 교사와 AI가 추천하는 차시별 맞춤 수업자료 제공

테크빌교육의 AI 기반 추천 시스템 ‘AiM’과 웹 크롤링 기술을 결합한 ‘AI 수업자료 큐레이션 서비스’는 수업 준비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수많은 데이터를 선별해서 제공하는 것이 서비스의 핵심이다. 우선 차시별로 수업 내용을 분석해 검색 키워드 추출, 웹 크롤링, 자체 필터링의 3단계 과정을 거쳐 최적의 콘텐츠를 구성한다. 또한 현직 교사가 직접 콘텐츠를 선별하고 수업 활용팁까지 담아 제공한다. 사용자의 ‘추천·조회·즐겨찾기’와 같은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큐레이션 과정에 반영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됨에 따라 인공지능은 사용자들의 특성을 이해해 고차원적인 학습을 하게 되고, 정교화된 추천 기술이 적용된 맞춤형 수업자료 제공이 가능해진다.



AI 수업자료 큐레이션 서비스 스크린샷.

큐레이션 서비스 넘어 공유 플랫폼으로 진화

‘AI 수업자료 큐레이션 서비스’는 단순히 큐레이션된 콘텐츠를 사용자가 소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큐레이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수업에 적합한 콘텐츠를 직접 등록하거나 ‘나만의 활용팁’을 공유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사용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개선시켜 나갈 예정이다. 테크빌교육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술적 시도를 통해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를 이어갈 방침이다. **T**

부산에 가면 바다와 'MAKER-ARTIST'들이 있다

해양교육을 위한 학교 MAKER 활동

글. 양홍규 낙동초등학교 선생님

요즘 부산은 MAKER 교육 열기로 뜨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다. 학교 내 무한상상실을 기반으로 교육청과 학교가 창의인재 양성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화르르' 태우고 있다. 부산에서 떠오르는 불꽃이 전 세계로 번질 수 있도록 나도 '해양-MAKER'라는 장작을 넣어보았다. 부산 인구의 40% 이상이 해양과 관련된 직업에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다. 해양은 우리나라의 미래이며 세계 인류가 풍족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한 마지막 보물창고이다. 우리 아이들이 해양 강국의 주인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해양-MAKER' 활동을 해보았다. 간단히 몇 가지 소개해본다.

과학의 달에 '바다사랑 창의공작 대회'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교내 과학대회가 줄어들고 있다. 아이들이 섭섭해하는 것보다 미래 인재들의 직접적인 과학 경험이 사라질까 걱정이다. 어릴 때 보고 느낀 작은 경험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다. 기초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높이고, 내 생각을 실현해 볼 수 있는 MAKER활동을 해양교육과 관련지어 보았다.

1·2학년 해양기지 만들기, 3·4학년 재미있는 고무동력 배 만들기, 5·6학년 해양쓰레기 수거 장치 만들기. MAKER교육의 꽃은 '자랑대회(MAKER-FAIR)'라고 생각한다. 학년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2인 1조로 작품을 만들고, 발표하고, 시연해보았다. 엉뚱하지만 창의적인 아이들의 발표에 모두들 웃고 즐길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

교실 재료를 이용해 해양 작품을 만들었어요

메이커교육과 함께 항상 따라다니는 기계 삼총사가 있다. 3D펜, 3D프린터, 레이저커팅기!



1, 2, 3. 1·2학년은 해양기지, 3·4학년 재미있는 고무동력 배, 5·6학년 해양쓰레기 수거 장치 만들었다.

- 4, 5. 색종이와 찰흙으로 해양작품을 만들었다.
6. 우드락과 다양한 재료로 이용해 만든 캐릭터를 물에 띄워보았다.
7, 8. 부모님과 함께 해양을 주제로 MAKER활동을 했다.



이 삼총사로 인해 300년 전 창의적인 가내수공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진정한 MAKER는 도구와 재료를 따지지 않는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 쉽게 구할 수 있는 교실 속 재료를 이용해 해양생물과 해양연구소를 만들어보았다. 색종이 한 장, 찰흙 한 조각도 훌륭한 재료가 되어 아이들의 해양적 상상력을 표현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부산형 MAKER-FAIR인 '메이커랑 놀자!'에 참가했어요

'메이커랑 놀자!'를 알고 있는가? '메이커야 놀자!'가 아니라 '메이커랑 놀자!'다. 부산에는 학생들이 계획하고 만들고 진행하는 특이한 MAKER-FAIR가 열린다. 2019년에는 부산시 초·중고 200여 팀이 참가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랑하고 공유했다. 우리 아이들도 질 수 없다. 우리는 해양을 주제로 캐릭터 배를 만들어 참가했다. 레이저커팅기로 틀을 만들고, DC모터로 페달을 달았다. 우드락과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캐릭터를 만들고 물에 띄워보았다. 3일 동안 밤을 새워가며 공작KIT를 만들어 1000원에 판매했다.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에 기부했다. 설명하랴 손님 받으랴 정신없었지만, 어디서 이런 소중한 경험을 해볼까? 힘들다며 툭툴거리던 아이들도 내년에 꼭 다시 오겠다며 벌써부터 준비를 한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교내 해양페스티벌' 개최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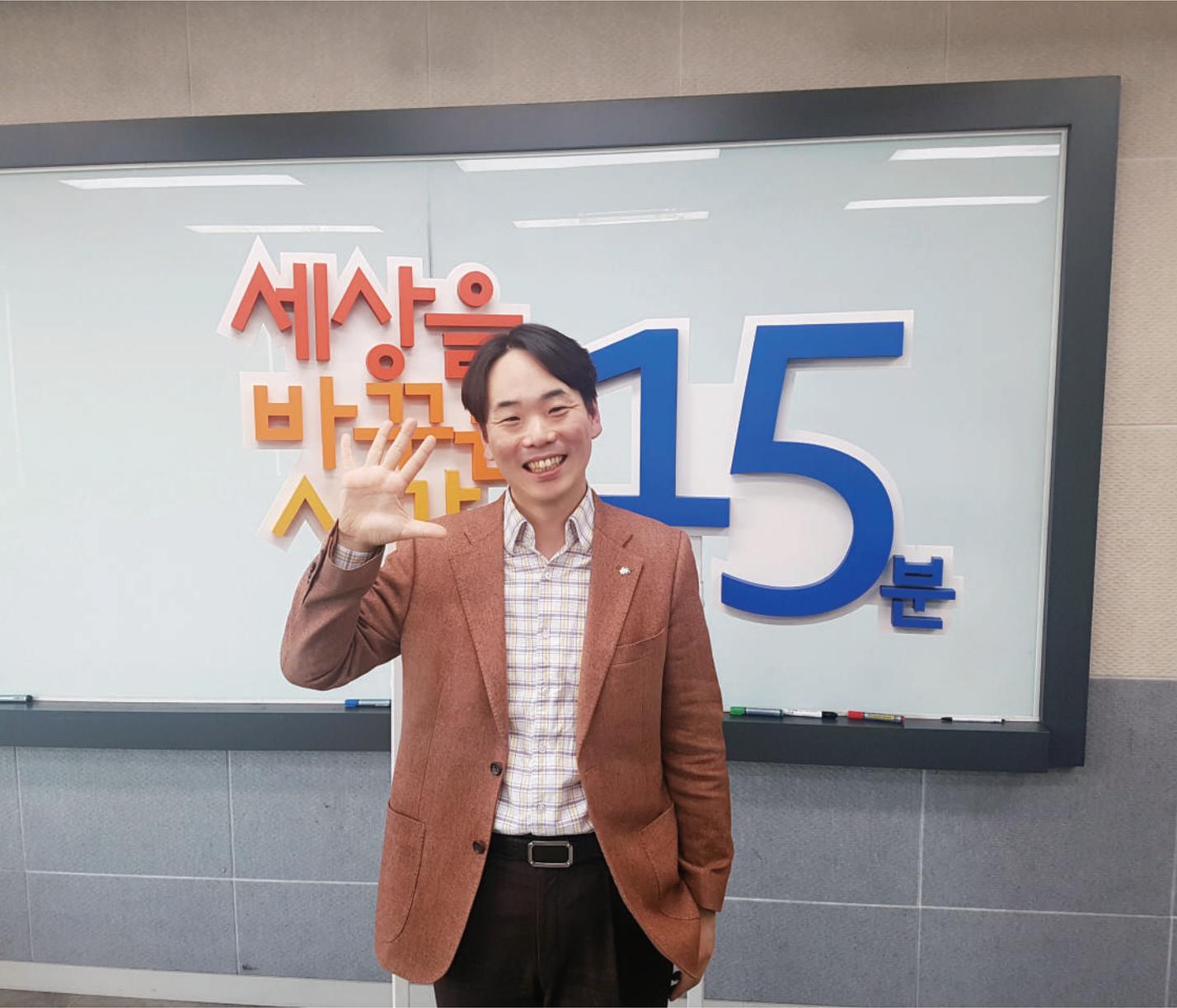
1년 동안 아이들과 해양을 주제로 MAKER활동을 했다. 환경구성, 해양 만들기, 교내의 대회참가, 해양현장학습 등 많은 해양적 소양을 경험할 수 있었다. 1년을 마무리하는 활동으로 해양축제를 열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면 해양을 붙여 이것저것 다 넣어보았다.

LED해양목걸이 만들기, PET병 고무동력배 만들기, 해양퀴즈 낚시, 바다사랑 페이스페인팅, SW-독도지킴이, 해양직업 카드놀이, 카프라 해양도시 만들기, APP-해양생물 구경하기 등 하나라도 더 체험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에 기분이 좋아졌다. 정신없을 것 같던 해양축제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즐겁게 마무리되었다. 교사·학생·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만들기 교육과 MAKER 교육의 차이점은 지식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MAKER는 자랑하고 싶어한다. 내 기쁨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나만의 원석으로 간직하기는 것보다 모두가 사랑해주는 보석이 되길 원한다. 만들기를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이 메이커를 예술로 발전시키는 MAKER-ARTIST가 되길 바란다. **T**



약력 양홍규

- 現 부산 낙동초등학교 교사
- 부산 STEAM&MAKER 선도교사 활동
- 37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특상 지도
- 전국골드버그대회(과천) 학생지도 (2014~2017)
- 부산 서부발명교육센터 담당교사 (2013~2015)
- 탐구토론대회 부산대회 학생지도 (2011~2012)
- 서부영재원 발명영재 등 강의
- 저서 「부산발명교육센터 기본교육, 공통교재, 부산발명영재 초등(5-6학년)」, 교재 집필



"세상에 길을 보여주는 작은 영웅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수업의 신' 노하우 "아이들과 공감", "정확한 지식 전달"

글. 김현정 티처빌사업부 선임

티처빌 <수업의 신> 연수에 대한 인기가 심상치 않다. 단기간에 연수 탕뎀에 오르더니, 현재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좋은 강의내용은 기본이고, 강의하는 사람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진정성이 어우러져야 가능한 일이다. “선생님들은 이 세상의 희망”이라는 그는 “내가 가진 노하우를 선생님들에게 그냥 드려도 좋다”고 말한다. <수업의 신> 최재웅 강사를 ‘티처빌이 간다!’가 만나보았다.

Q.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운영하고 있는 ‘폴앤마크’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해주세요.

교육과 관련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게임과 카드를 만들어 학습에 도움을 주고 싶어서요. 그 이외에도 북유럽의 학교나 기업들과 교육에 대한 테스트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폴앤마크’ 회사 이름에서 폴은 저이고, 마크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 만난 미국인 친구의 이름이에요. 그 친구와는 미국에서 교수법을 배울 때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계속해서 교육 관련 일을 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소유한 적지 않은 지적자산을 무료로 주면서 제 사업의 시작을 도와주었어요. 지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의 계약서에 사인까지 해서 선물로 주었죠. ‘이 계약서가 내가 너를 믿는 신뢰의 수준이다.’라고 말하면서요. 그 마음이 정말 고마워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회사 이름을 폴앤마크로 짓게 되었어요. 그렇게 회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세계 곳곳의 선진교육을 수입해 제공하거나 한국화하는 일입니다. 청소년 기관과 정부, 기업 그리고 대학에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미디어와도 일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교육 기여가 꿈인데요. 미약하지만, 이미 시작하기는 했습니다. 남미 에콰도르의 교육 봉사를 시작으로 아마존 지역과 동유럽의 몰도바, 아시아의 베트남·몽골의 선생님들을 돕는 교수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력 최재웅

- 現 폴앤마크 대표
- 現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교육 콘텐츠 연구소장, 연사 코치
- 세바시 스쿨 대표 역임
- 저서 「강의력, 천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외 다수

Q. 티처빌 연수 <수업의 신> 반응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강의력이나 교육에 관하여 많은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요,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제 친구인 마크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럼 셀파가 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셀파는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는 등반가를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올라가는 길과 내려가는 길 모두 도와주지만 빛도 그림자도 없이 응원해주고, 그들이 정상에 올라간 것을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셀파를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궁금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스타가 되고 싶지 스타를 만들어주고 싶진 않잖

아요. 저는 선생님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스타로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만 제 노하우를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기업 강사이기 때문에 사실 노하우를 일반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나 선생님께 강의하면 왠지 더 드러야만 할 것 같아요. 더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수업의 신> 연수가 탄생했어요.

Q. 3월 새 학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새 학기에 적용하면 좋은 교수법이 있나요?

<수업의 신> 연수 후기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초심을 찾아야겠습니다. 처음 아이들을 만나러 갈 때 밤새 두근거리면서, 수업 연습하고 손짓도 연습했던.’ 아마 처음 교사로 부임했을 때에는 다 그러셨겠지요? 그 아이들에 대해 걱정했던 마음을 새 학기가 시작되면 모든 아이를 초심처럼 대하려는 습관을 하나 정도 정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습관을 믿거든요. 예를 들어보면 ‘선생님이 약간 화가 나서 무관심해졌다면 끝까지 관심 가지는 습관’, ‘선생님도 모르게 표정이 굳어 진다면 아침마다 입술을 올리면서 웃는 습관’, ‘한숨을 쉬는 습관이 있다면 한숨 대신 하하하 호탕하게 웃음을 짓는 습관’ 등. 모두 할 필요는 없지만 습관 하나만 바뀌면 한 학기마다 조금 더 아이들은 선생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고, 선생님도 스스로 더 근사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이 교단을 떠나가실 때쯤 ‘참 선생님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선생님의 작은 변화는 세상의 희망이에요.

Q. 연수 제목처럼 ‘수업의 신’이 되고 싶은 선생님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교육 철학자인 존 듀이의 ‘Learning by doing’에서 우리나라는 ‘doing’에 약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Learning by thinking’이 강한 것 같습니다. 제가 책에 썼던 말 중에 ‘천 권의 책보다 천 번의 강의를 명강사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렇듯 선생님들의 천 번의 수업 시도가 선생님을 수업의 신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전지대를 벗어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 굉장한 명강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처음엔 어색할지 모르지만,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그러나 당신의 태도를 느낄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죠. 아이들은 분명히 말하지 않아도 선생님의 마음을 느낄 것이고, 아이들은 언젠간 선생님이 했던 따뜻한 말과 모습이 꼭 필요한 순간에 떠오를 거예요. 마음이 전달된다는 말을 믿거든요. 그걸 포기한다면 수업의 신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좋은 수업의
첫 번째는
'아이들과 공감하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확한 지식을
전한다.'입니다.

”



Q. 마지막으로, 좋은 수업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과 꿈을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수업의 첫 번째는 '아이들과 공감하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확한 지식을 전한다.'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다시 한 번 다듬어진, 매번 정제되고 준비된 내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직접 실험해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수업에 정보만 전하는 것이 아닌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자신의 삶에 배운 내용을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변화라고 하죠.

제가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좋은 교육이 남기는 것은 무엇일까요?'라고 묻는 대답에 '좋은 교육이 남기는 것은 변화된 존재다.'라고 답을 해요. 변화된 존재를 끌어내기 위해 공감하고 정보를 주고, 그것을 실험하고 자기 자신에게 도전을 주는 과정, 그것이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시간 안에 일어나지 않아도 차근차근 준비해놓으면 매력적이겠죠. 선생님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마지막 꿈은 누군가에게 롤모델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길을 보여주는 작은 영웅이 많았으면 좋겠거든요. 빵을 만들건, 환자를 고치건 무슨 일을 하든지에 상관없이 어떻게 일하는지, 다시 말해 '저렇게 살면 되겠다.'는 모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 사람. 제 꿈은 누군가의 모델로 죽는 것이예요. 적어도 제 자녀가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①

[2학점] 수업의 신



교사를 위한 온라인 상담실 '쌤톡톡'

글. 최성애 HD행복연구소 소장



오늘날 한국은 물질적 빈곤보다 정신적 빈곤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의 아동청소년의 행복도가 OECD 국가 중 8년 연속 최하위이며, 청소년 자살률은 최상위이다. 학교 폭력, 왕따, 학습 어려움으로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도 많다. 경쟁적 학습, 입시 스트레스, 출산율 저하, 가정불화와 해체, 맞벌이 부부의 증가, 잦은 이사와 전학 등으로 정서적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결과 파생되는 정신적 빈곤이 더 크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한다는 것은 훨씬 더 큰 책임과 도전이 될 것이다. 그만큼 교사의 부담감·압박감·책임감·고충 또한 막중하다. 여기에 개인적·가족적·관계적 갈등까지 더해진다면 심신의 건강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선생님의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전문가로부터 치유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쌤톡톡'이라는 온라인 상담실을 쌤동네 사이트에 열었다. '쌤톡톡'을 통해 심신을 재충전해 즐겁고 창의적인 수업을 하고, 다양한 학생과 행복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유치원 원장님 사례로 보는 상담톡톡! 쌤톡톡!

[상담내용] 얼마 전 50대 중반의 유치원 원장님이 찾아왔다. 지난 두 달 동안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20여 년 열정을 바쳐 키워온 유치원을 그만두고 싶다며 평평 우셨다. 유치원을 졸업한 지 2년이 지난 원생의 부모님이 찾아와 아이가 예전에 담당교사로부터 매를 맞고 벌을 받은 적이 있었다면서 유치원 원장과 교사를 고발하겠다는 내용이였다. 그날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아프더니, 이후 맘카페에 올리겠다는 전화를 받은 후 일에 집중이 안 되고, 식욕이 떨어지고, 잠이 안 오고,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한다. 정신과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판정을 받은 날 자괴감과 수치감으로 죽고만 싶었다고 한다.

[해결책] 이분의 경우 극도의 스트레스로 우울과 불안증에 갇히기까지 겹쳐 심신이 소진된 상태여서 곧바로 하트매스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어진 상담을 통해 원장님은 평소 완벽주의와 어려서부터 소녀가장 역할을 해 오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몹시 민감했던 자신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첫 상담 후 원장님은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차분하고 명료하게 볼 수 있었다. 이틀째부터는 잠을 푹 잘 수 있었고, 학부모의 금전적 보상 요구를 정중하게 효과적으로 거절할 수 있었으며, 자신과 유치원 교사들의 안전과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었다.

원장님은 “첫날 황설수설하던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줄 때 마음이 놓였고, 부정적 감정에 휩싸여 방향감각과 중심을 잃었던 자신을 존중하고 지지하면서 공감해준 것이 안정감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도움은 역시 전문성이었다고 강조했다. “발달단계상 인지 능력을 고려해볼 때 유치원생이 사건 발생 2~3년 후에 선생님께 맞았던 기억을 구체적으로 시간과 장소, 선생님의 표정과 의도까지 떠올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만 4~5세 아이들에게 전체적 인상과 감정적 느낌은 남을 수 있지만, 세세한 내용은 어른의 구체적인 지시나 암시 없이 자발적으로 하기 어렵다”라는 전문적 의견이 상황을 합리적으로 보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쌤톡톡 바로가기



이런 의견을 듣고 원장님은 당시 기록일지를 다시 살펴보았다고 한다. 지목된 특정 날짜 부근에 아이의 생활기록에는 아무 특이사항이 없었고, 아이를 때렸다는 선생님을 아이가 가장 잘 따르고 좋아했다고 보낸 학부모의 감사편지까지 찾아내 그 교사도 오해와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불안감과 공포에 휩싸였을 때는 이런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상담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좀 더 큰 시야에서 문제를 보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게 된 것이다. 더욱이 원장님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의 완벽주의와 타인의 평가에 과잉 반응하던 '미해 결과제'까지 알아차리고 극복해 삶에 여유와 균형을 갖는 전화위복이 되었다고 기뻐했다.

쌤톡톡, 선생님의 행복한 학교와 가정 이루기 위해 전문 컨설팅 진행

쌤톡톡은 세계 최고의 관계치료법으로 인정받는 '가트맨연구소'에서 검증하고, 안전한 관계의 기술과 최첨단 스트레스 관리법으로 인정받는 '하트매스연구소'에서 개발한 방식으로 선생님님이 행복한 학교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 업무와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대처 능력을 배움으로써 크고 작은 난관이나 불행을 예방하거나 초기에 감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후 대책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우수한 선생님들의 능력이 좀 더 활력적·생산적·창의적으로 발휘되도록 상담과 교육을 병행한다. 가장 큰 장점은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단기치로 위주이며, 효과성이 높고 재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①

쌤톡톡 상담 대상

- 내 아이와 학생들과 잘 지내고 싶은 데 뜻대로 안 된다.
- 이 세상에서 나의 괴로움과 아픔을 아무도 몰라주고 말할 곳이 없다.
- 내 삶의 모습이 후회되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다.
- 모든 게 내 잘못으로 오해받는 게 억울하고 화가 난다.
- 아무리 해봐도 잘 안 될 것 같아 절망스럽다.
- 스스로의 의지로는 도저히 충동조절(분노조절)이 어렵다.
- 자신감이 없고 자책감에 짓눌린다.
- 의사소통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인간관계를 반복한다.
-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 위 항목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쌤톡톡의 '쌤톡톡'을 찾아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을 심판하거나 훈계하거나 탓하거나 분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느낌·경험을 존중하고 경청하면서 좀 더 바람직한 대처법과 해결방법을 함께 찾아볼 것입니다. HD가족클리닉 상담사들은 미국심리학회에서 검증된 과학적인 방법만을 사용합니다.



약력 최성애

- 現 HD행복연구소 소장
- 국내최고 심리치료사
-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심리치료전문가
- 전 미국·미시간대학교 공과대학 심리학과 교수
- 저서 『내 아이를 위한 감정코칭』, 『나와 우리 아이를 살리는 회복탄력성』 등

쌤톡톡 상담 방법

1. 쌤톡톡 '상담톡톡' 게시판에 고민이나 상담 받고 싶은 내용을 '익명'으로 게시
2. HD행복연구소의 전문 상담사가 댓글로 1차 답변을 하고 필요에 따라 몇 가지 추가 확인
3. 유료 오프라인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게시물 혹은 댓글로 이메일 주소 남기기
4. 신청 내용 확인 후 시간·비용·장소 등 상세 안내 예정

※ 온라인 상담 및 오프라인 상담 모두 선생님의 결정을 존중하며, 전문 상담사와 슈퍼바이저 외 아무도 알 수 없도록 개인 정보와 비밀을 지켜드립니다.

감정이 자유로우면 지성은 스스로 꽃피운다

학교 교육 패러다임 전환으로서 회복적생활교육

글. 신호승 대화디자이너, 회복적생활교육실천가



수학에서 멀어진 사연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선생님을 존경하진 않았어도 그의 수업 스타일엔 매력을 느꼈다. 선생님은 문제를 정리하고 풀이 시범을 보인 뒤, 학생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곤 했다. 답을 가르쳐주기보다는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시간을 허용하는 선생님 덕분에 난 수학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 문제를 푸는 그 시간을 즐기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수학시간에 벌어진 일이 이후 나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다. 수학시간, 선생님은 평소처럼 문제 푸는 요령을 칠판에 설명하고, 우리들에게 다른 문제를 풀어보라고 시간을 주셨다. 그때 선생님이 내 등 뒤에 있는 친구에게 큰소리로, “너 이리로 나와!” 했고, 친구가 쭈뼛쭈뼛 선생님 곁으로 걸어가자 손바닥으로 친구의 뺨을 때리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수학선생님만 보면 공포에 떨어야 했고 급기야 수학 공부 자체가 싫어지게 되었다.

생활과 지식은 떨어져 있지 않다

회복적생활교육을 이야기하면서 고등학교 수학시간의 경험을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나를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범대학에 진학하고 교사의 삶을 꿈꾸면서, 적어도 난 그 수학선생님처럼은 되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인성 면접을 볼 때, 교수님이 내게 물었다. “자네는 왜 사범대학 교육학과에 입학하려 하나?” 나의 답변은 ‘우리나라 교육을 바꾸고 싶다’였다. 회복적생활교육은 비단 학교 ‘생활’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학교교육 패러다임 자체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전환을 요구하는 게 회복적생활교육이다. 수학선생님은 당시 학생이던 우리를 배움의 대상으로 생각하셨던 듯하다. 그리고 우리를 ‘때려서라도’ ‘바르게’ 인도하고 싶었을 것이다. 허나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나는 수학에 흥미를 잃었으며, 다른 이를 교정하기 위해선 ‘폭력’이 정당화된다는 것만을 배웠을 뿐이다.

교사는 교사로서 본인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자라나길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교육의 목적이며 교사의 존재 이유일 것이다. 아마도 대부분의 교사는 학생이 자유롭게 사유하고 스스로 없이 자신을 표현하며,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를 존중하면서 소통·협력하고 창의적인 길로 나아가길

회복적생활교육이란?

회복적생활교육이란 기존 생활지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학생은 배움과 지도의 대상이고, 따라서 통제와 처벌로 규율해야 한다는 기존 생활지도는 더 이상 학교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학교를 둘러싼 교육 환경은 물론 그 안에 살아가는 학생과 학부모도 변했기 때문이다. 교육 환경은 이제 기존 지식의 기계적 적용을 뛰어넘어 창의성을 절실히 요구한다. 학생들은 스스로의 자존감과 주체성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회복적생활교육이란 이러한 시대적 추세를 반영한다. 학생을 배움의 주인으로 세움과 동시에 학교공동체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슈에 학생 스스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안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회복적생활교육이다.



약력 신호승

- 現 대학의 정원 대표
- 現 회복적서클 진행자
- 경기도교육청 「평화로운 학교를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 매뉴얼」 공동 연구자

바란다. 아이들은 교사의 말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행동을 보고 배운다고 한다. 교사가 바라는 학생의 미래가 있다면, 지금-여기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외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방법은 없어보인다.

경기도에 있는 작은 시골학교에 붙어 있는 글이 떠오른다. “감정이 자유로우면 지성은 스스로 꽃피운다.” 회복적생활교육은 학생을 배움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세워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고, 감정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지성을 꽃피우는 바탕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생활 교과와 지식 교과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은 셈이다.

회복적생활교육은 학교의 미래지향적 응답

회복적생활교육을 마치 학교 폭력의 대안으로만 여기는 풍조가 있다. 물론 그렇다. 2019년 ‘학폭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학교 폭력 사안을 응보적·처벌적 사법 프로세스로 다루어야 한다는 우리 사회 인식엔 변함이 없어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 복구 및 관계 회복, 공동체성과 자기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회복적 생활교육의 접근이 우리 사회의 응보적 문화에 대한 대응으로 받아들여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회복적생활교육을 학교 폭력에 대한 응답으로만 받아들이기엔 그 의미가 축소된다. 회복적생활교육은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바탕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영역은 일상에서의 소통과 공감을 위한 훈련과 실천이다. 솔직하게 자기 표현하기, 상대 이야기에 귀 기울여 공감으로 듣기, 그리고 이에 기초한 민주적 의사결정 훈련과 실천이 회복적생활교육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그다음 27% 정도는 공동체 내의 작은 갈등을 다루는 훈련과 시스템 구축, 그리고 약 3% 내외는 깊고 커다란 피해를 낳은 학교 폭력에 대한 대응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교육과 생활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주체로 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인공지능 등의 발달로 미래 인간 역량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고 있다. 주어진 각본에 따른 삶이 아니라 스스로 각본을 만들고 구성하는 능력을 지닌 인간이야말로 미래 인재가 추구하는 상이다. 그런 면에서 회복적생활교육은 달라진 세상과 사람에 대한 학교의 미래지향적 응답이라고 볼 수 있다. ①

교육문의

회복적생활교육을 위한 학생 역량 강화, 학교, 학급내 갈등조정을 위한 회복적서클 토래진행자 양성 등

즐거우학교 | 070-8282-0140 | www.njoyschool.net

테크빌교육, 제7회 미래창조경영우수기업대상 수상



머니투데이가 주최하는 ‘2019 제7회 미래창조경영우수기업대상 및 고용노동부 장관상 시상식’이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테크빌교육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듀테크 기업이다. 2001년 설립 이후 54만 명 이상의 유초중고 교사 회원을 보유한 ‘티처빌원격교육연수원’을 중심으로 공교육 지원사업에서 성장세를 보여왔다.

‘티처빌원격교육연수원’은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2002년 설립됐

으며, 민간원격연수원 중 최대 규모인 420여 개의 유/무료 직무연수와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연수를 제공한다. 아울러 테크빌교육의 에듀테크연구소에는 40%의 R&D 인력이 소속돼 있어 기술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에듀테크 관련 특허만 13건 이상 보유하고 있다.

중기&창업팀 홍보경 기자

테크빌교육, 중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여성 취업지원 MOU



에듀테크 기업 테크빌교육이 “서울시 중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중구새일센터)와 중구 여성플라자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여성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실질적인 취업지원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SW·AI 융합교육 분야에서 경력단절 여성의 SW역량 제고 및 사회 진출 확산을 위한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테크빌교육은 △SW, 메이커교육, 인공지능 등 미래교육 관련 여성인력 적극 채용 및 강사 양성 △교육업계의 네트워크 활용한 여성인력

채용 정보 제공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중구새일센터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발굴 △구직자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가정양립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기업 이미지 향상 위한 홍보 등을 함께 진행한다.

박기현 테크빌교육 부사장은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포함하는 SW교육 강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라며 “중구새일센터와 함께 SW교육 및 융합교육 시장에 꼭 필요한 고부가가치 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이투데이 (2019.12.27)

테크빌교육 티처빌, 유튜브 온라인 직무연수 과정 개설



테크빌교육의 '티처빌원격교육연수원'은 교사를 위한 유튜브의 모든 것을 담은 '1인 미디어 전성시대, 유튜브 브런치' 온라인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구글 코리아와 함께하는 유튜브 교육 프로젝트 '유선생 아카데미'의 대표 교사들이 제작에 참여했다. '유튜브란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교사로서 유튜브 콘텐츠를 활용하고, 제작하는 방법까지 유튜브에 대한 모든 것을 제공한다.

학생들과 함께 교단일기를 운영 중인 신민철 선생님을 중심으로 음악을 사랑하는 단소강의의 1인자 이정인 선생님, 고등학교 과학 교과 관련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는 김가람 선생님 등 실제 교사 유튜브버와 인기 유튜브의 생생한 노하우를 담았다.

'유튜브 브런치'는 총 15차시로 구성된 1학점 직무연수다. △유튜브, 어디까지 알고 있니? △미디어 리터러시와 유튜브 교사 △유튜브 교실 활용 사례 △장비 구입부터 세팅, 촬영까지 △영상편집, 나도 할 수 있다 △유튜브 고민 상담소 등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다.

김지혜 테크빌교육 티처빌사업부문 상무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학생들과 더불어 유튜브의 다양한 콘텐츠를 수업 및 교육현장에 활용하고자 하는 선생님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유튜브의 교육적 활용 꿀팁을 대거 담아내 평소 유튜브에 관심이 많았던 선생님들께 유용한 연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아주경제 (2020.01.14)

티처빌-다이아 티비, 끼 넘치는 크리에이터 뽑는 '스쿨스타S' 개최



테크빌교육이 운영하는 '티처빌연수원'은 1인 창작자 지원 사업 '다이아티비(DIA TV)'와 공동 주최한 '스쿨스타S' 공모전의 결선 및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스쿨스타S'는 교사 및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크리에이터를 뽑는 대회다. 1차 예선 경쟁률이 37.8 대 1을 기록할 정도로 관심을 끌었다. 예선을 거쳐 결선에 진출한 10개 팀은 △학교 △시작 △겨울 △끼(텔런트) 중 한 가지 주제로 영상 제작 미션이 주어졌다.

최종 심사 결과, 교사 부문에서 '라떼는 말이야, 우리는 말이죠'를

제출한 '몽당분필' 소속 최서원 선생님이, 청소년 부문에서 '잼스정우'의 겨울이야기 대상을 차지했다.

교사 부문 대상을 차지한 '몽당분필'의 최서원 선생님은 초등학생과 교사가 각자의 학창시절을 소개하는 '라떼는 말이야(나 때는 말이야), 우리는 말이죠' 영상을 통해 세대 간 공감을 재미있게 표현했다. 그는 "누구나 즐겁게 볼 수 있는 라떼 시리즈 영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부문 대상을 수상한 이정우 군은 중학생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재치 넘치는 입담과 특유의 캐릭터 매력을 선보였다. 이 군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잼스정우'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다.

각 부문 별 대상(2개팀), 최우수상(2개팀), 우수상(6개팀) 수상자에게는 각각 250만원, 100만원, 50만원 등이 한국교직원공제회 '더케이손해보험'의 후원을 받아 수여됐다.

현상철 기자

테크빌교육, 교육 잡지 ‘티처빌 매거진’ 웹에서 본다



에듀테크 기업 테크빌교육(대표 이형세)이 전국 초중고 선생님들을 위한 교육 전문 웹진 ‘티처빌 매거진’을 티처빌 사이트 내 공식 오픈했다.

2018년 3월 창간한 티처빌 매거진은 연 4회 인쇄물로 발행되는 계간지다. 2년간 최신 교육 이슈 및 초중등 교사의 수업노하우, 학교 현장의 다양한 소식과 더불어 테크빌교육의 브랜드 이야기를 담아내며 교사와의 공감대를 키워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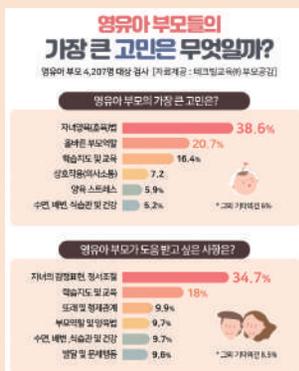
올해부터는 인쇄본을 줄이는 대신 독자들의 접근성이 높고 이용이 편리한 웹진을 발간해 초중등 교사와의 소통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수업 및 학급운영에 대한 노하우부터 사진, 미술, 노래(합창), 요리 등 교사 개인의 특별한 재능과 취미까지 현직 교사들의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 독자들의 흥미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이밖에 교육 정책 이슈와 관련된 전문가 기고 및 소프트웨어(SW), 메이커 교육 등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대비한 최신 교육 트렌드를 알기 쉽게 사례 중심으로 소개한다. 이번 봄호부터는 교사 심리 상담 코너인 ‘쌤톡톡’을 신설해 최성애 박사 등 전문가 칼럼도 연재된다. 웹진은 교사 지원 플랫폼 ‘티처빌’ 사이트에 방문하면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으며, 인쇄본 매거진은 향후 VIP 회원에 한해 구독신청을 받아 프리미엄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백봉삼 기자

영유아 부모 최대 고민은 ‘자녀 양육·훈육법’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이 갖는 최대 고민이 ‘자녀 양육·훈육법’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에듀테크 기업 테크빌교육(대표 이형세)의 부모교육 서비스 ‘부모공감’은 15개월부터 만5세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42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38.6%가 ‘자녀 훈육법’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그 뒤를 이어 20.7%의 응답자가 ‘현재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고민이 되는 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올바른 부모역할’을 답했다. 이 밖에도 ‘학습지도 및 교육’(16.4%) ‘자녀와의 상호작용’(7.2%) ‘양육 스트레스’(5.9%) ‘수면, 배변, 식습관 및 건강’(5.2%) 순으로 자녀 양육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기타 응답으로는 ‘발달 및 문제행동’ ‘생활습관’ ‘의사소통’ 등이 있었다. 반면 크게 고민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8%에 그치는 등 대다수 영유아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부

모교육과 관련 도움을 받고 싶은 사항으로 응답자의 34.7%가 ‘자녀의 감정표현 및 정서조절’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학습지도 및 교육’(18%) ‘드래 및 형제관계’(9.9%) ‘부모역할 및 양육법’(9.7%) ‘수면, 배변, 식습관 및 건강’(9.7%) ‘발달 및 문제행동’(9.6%) 등에 대해 도움을 구한다고 답했다. 회사 측은 “이번 결과가 영유아 부모들이 아이의 특성과 기질에 맞는 부모자녀 관계 솔루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부모공감은 영유아 부모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는 ‘영유아 부모자녀 관계검사(PRT)’ 서비스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민서 기자

MTN 머니투데이방송 (2020.02.24)

‘트롯 토끼·망토 개’ 데뷔…제2의 핑수 누구?



[앵커멘트]

학습 교재나 완구를 제작하는 콘텐츠 업체들이 ‘제2의 핑수’ 만들기엔 나섰습니다. 트롯 가수 김연자의 노래를 부르는 토끼, 보자기를 망토처럼 두른 강아지 등 다양한 캐릭터들이 최근 데뷔 전을 치렀는데요. ‘핑크 붐’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윤석진 기자가 전합니다.

[기사내용]

곰돌이들의 갈군무가 끝나자 한복을 차려입은 토끼가 나와 노래를 부릅니다.

가수 김연자의 신곡 <썩덕쿵>입니다. 중간중간 동물 친구들이 등장해 흥을 돋웁니다.

초이락텐츠펙토리가 만든 뮤직비디오 <썩덕쿵 토끼>는 유튜브 조회수 210만 건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실제 가수의 뮤직비디오를 가상의 동물이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상용 초이락 팀장: 캐릭터가 인기를 얻으려면 캐릭터 자체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캐릭터와 캐릭터를 부각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잘 결합돼야 캐릭터가 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티처’에 나오는 망토 두른 강아지도 눈길을 끕니다. 캐릭터의 이름은 ‘쌈구’. 테크빌교육이 교사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와 특전을 온 몸으로 소개해줍니다. 쌈구는 유튜브 채널 ‘쌈다큐’에 인턴사원으로 출연하는 등 활동 영역을 넓힐 예정입니다. 이처럼 업체들이 캐릭터 만들기엔 나선 이유는 브랜드 인지도는 물론 수익성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윤석진 기자

머니S (2020.03.03)

키즈티처빌, 어린이집 교사 대상 코로나19 대응 안전교육 무료 지원



테크빌교육의 영유아 교사교육 브랜드 ‘키즈티처빌’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영유아 감염병 예방 및 안전교육 통합 과정’을 무료로 오픈한다고 밝혔다.

테크빌교육 측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전국 어린이집이 휴원에 들어간 가운데 감염병 예방교육과 연관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안전교육 통합과정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고 어린이집의 안심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면 접촉이 어려운 시기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 및 교육기관에서의 주의점 등을 포함한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해 단시간에 많은 교사들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종미 테크빌교육 키즈티처빌사업부 이사는 “코로나19는 전국민이 주의를 기울여야 빠른 시간에 종식될 수 있는 감염병인만큼 전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며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등원하기 전에 모든 교사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교육기관에 영유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키즈티처빌은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보육교직원 온라인 특별직무교육 위탁기관에 선정돼 영아보육 등 보수교육 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안전교육 무료 수강은 ‘키즈에듀빌’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강인귀 기자

2020년 티처빌연수원 상반기 학사 일정

기수	학점	연수시작일	연수종료일	출석고사	이수증발급
2기	3학점	03월 11일	04월 07일		04월 08일
		03월 25일	04월 21일		04월 22일
	2학점	03월 04일	03월 24일		03월 25일
		03월 18일	04월 07일		04월 08일
		04월 01일	04월 21일		04월 22일
	1학점	03월 04일	03월 17일		03월 18일
		03월 18일	03월 31일		04월 01일
		04월 01일	04월 14일		04월 16일
	3기	4학점	04월 22일		05월 26일
3학점		04월 16일	05월 12일		05월 13일
		04월 29일	05월 26일		05월 27일
2학점		04월 16일	05월 06일		05월 07일
		04월 29일	05월 19일		05월 20일
1학점		04월 16일	04월 28일		04월 29일
		04월 29일	05월 12일		05월 13일
4기	4학점	05월 20일	06월 23일		06월 20일
	3학점	05월 13일	06월 09일		06월 10일
		05월 27일	06월 23일		06월 24일
	2학점	05월 13일	06월 02일		06월 03일
		05월 27일	06월 16일		06월 17일
	1학점	05월 13일	05월 26일		05월 27일
		05월 27일	06월 09일		06월 10일

※ 출석고사는 4학점 연수에만 진행 ※ 연수 신청은 시작일 두달 전부터 가능



2020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 체험교육

즐거운학교가 전국 초·중·고 학교로 찾아갑니다.

학교 맞춤형 교육 지원



2020 학생교육 활동계획지원



공모사업 신청 계획 수립 지원



학교 예산 맞춤 컨설팅



오감 체험형 진로탐색 '해오름'

미래 직업 방송의 세계 디자인 마음과 마음 진로 미스터리 나만의 끼 넓은 세상

진로체험주간

학습동기 공부재미 있는데 왜? 재미? 노력정리 요약정리가 필요? 원천학습 포기할까? 필기?

학습역량강화

자신감, 공동체 의식, 팀워크, 스피치, 소통능력, 소동리더, 자기 발전, 바전 찾기, 셀프리더

리더십 캠프

바른 생활지도 솔루션

분노 화, 폭력, 충동조절 장애, 늘어나는 청소년의 충동조절장애

인성교육주간

고교학점제 대비 진로학습프로그램

고교학점제 대비

창의융합형 SW교육

STEAM 기반 인성코딩 체험활동

SW/메이커 교육

교육 진행 절차



교육활동계획

학교 맞춤형 교육계획서, 견적서 제공



교육운영

특색 있는교재와 교구, 전문가사 파견



결과보고

교육내용 및 학생교육 만족도 분석



정산 및 행정처리

나라장터, 학교장터 계약가능(행정부담 최소화)



원격연수원 최초, 회원등급제 시행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티처빌'의 변화

글. 이성희 티처빌사업부 수석



'티처빌'이 원격교육연수원 최초로 회원등급제를 도입하고 교사 지원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한 신규 서비스를 대거 선보인다.

티처빌은 57만 유·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직무연수 및 교사수업자료, 도서·교구재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사 지원 플랫폼이다. 이번 회원등급제 도입을 통해 티처빌은 선생님 회원에게 등급 별 차별화된 프리미엄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만족도와 브랜드 충성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이용하면 할수록 커지는 혜택과 서비스

FAMILY	SILVER	GOLD	VIP
연간 이용 금액 40,000원 미만	연간 이용 금액 40,000원 이상	연간 이용 금액 100,000원 이상	연간 이용 금액 200,000원 이상
[전용혜택] 포인트 2% 적립	[전용혜택] 포인트 2%+1% 추가 적립 ※ 2회정회원권 구매시 바로 등급	[전용혜택] 포인트 2%+2% 추가 적립 [추가혜택] 오프라인연수 무료초대 ※ 4회정회원권 구매시 바로 등급	[전용혜택] 포인트 2%+3% 추가 적립 [추가혜택] 오프라인연수 무료초대 VIP전용 이벤트 참여 티처빌매거진 무료구독

회원등급제는 전년도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패밀리·실버·골드·VIP 총 4단계로 구분한다. 상위 등급으로 올라갈수록 더 많은 할인 혜택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되돌려준다. 각 등급마다 2% 포인트가 기본으로 지급되

며 실버 1%, 골드 2%, VIP 3%의 포인트가 추가 적립된다.

골드 등급부터는 오프라인 연수 무료초대 혜택이 제공되며, VIP 등급이 되면 오프라인 연수 무료초대와 함께 수시로 진행되는 VIP 전용 이벤트 참여, 티처빌매거진 무료구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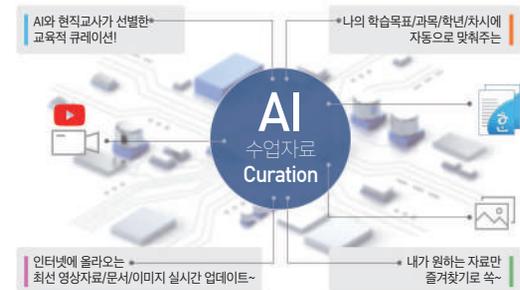
등 보다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회원등급 유지기간은 1년이며, 적립된 포인트는 무려 3년 동안 티치빌연수원과 티치몰에서 연수·교재·상품 구입 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회원등급제 적용에 따라 티치빌은 최대 32% 할인된 가격에 연간 회원권을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3월 중 진행할 계획이다. 회원권 구매와 동시에 선생님의 회원등급이 업그레йд되며 선물까지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선생님, 이제 ' 쌤톡톡', ' 쌤다Q'로 소통해요

티치빌은 오직 선생님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 쌤톡톡'과 교사 크리에이터를 발굴·지원하는 유튜브 채널 ' 쌤다Q'을 새롭게 오픈하고 선생님과 소통 강화에도 집중한다.

' 쌤톡톡'은 △선생님들의 업무 이야기를 나누는 ' 지식톡톡' △일상다반사를 나누는 ' 공감톡톡' △최성애 박사와 조벽 교수가 운영하는 HD행복연구소의 전문상담사가 직접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는 ' 상담톡톡'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고민과 사건사고 등 선생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며 힐링할 수 있는 코너이다.



' 쌤톡톡' 1천 명 시대, ' 쌤다Q'에서는 교사의 일상부터 학교 생활까지 교사 크리에이터들의 다양한 끼와 재능을 담은 콘텐츠를 재미있게 풀어낸다. 특히 티치빌의 마스코트인 ' 쌤구' 캐릭터를 활용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밝고 쾌활한 티치빌의 이미지를 전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 밖에 티치빌은 선생님의 수업 준비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수업자료 큐레이션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3월 중 오픈 예정인 'AI 수업자료실'은 AI와 현직교사가 직접 선별해 추천하는 수업자료를 차시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김지혜 테크빌교육 티치빌사업부 상무는 "티치빌을 선생님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시면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회원등급제를 비롯 회원권, 커뮤니티 공간 ' 쌤톡톡', 교사 유튜브 채널 ' 쌤다Q' 등의 신규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선생님과 소통의 공감을 넓히며 '인공지능(AI) 수업자료실'과 같은 최신 에듀테크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T**

나를 알아주는 티처빌

01

더 챙겨주는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나를 더~ 챙겨주는 착한 티처빌!



회원등급제
이용할수록 혜택
UPGRADE



티처빌회원권
최대 32% 할인+선물
1년 동안 자유롭게
모든 연수



포인트 1년 → 3년
3년 동안 이어지는 포인트
연수,교재, 상품 구입시
현금처럼

02

더 지원하는 선생님이 원하는 모든것! 티처빌이 지원할게요!



AI 수업자료실

자료가 오래되었다? 필요한 자료를
찾는데 오래 걸린다? 이제는 Bye Bye~
AI와 현직교사가 선별한 교육적 큐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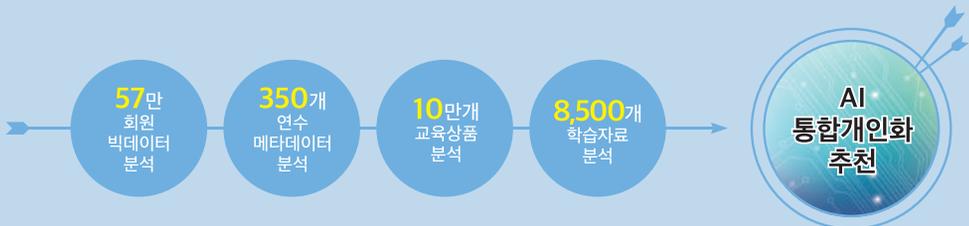


쌤동네 교사문화 플랫폼

교사콘텐츠 공유공간을 넘어
교사모임, 강사섭외까지!
쌤동네에서 다 해결

03

더 알아주는 선생님이 원하는 것을 똑똑하게 보여줘요!



04

더 소통하는 온니티처를 위한 커뮤니티, 교사 크리에이터 지원채널



교사커뮤니티, 쌤톡톡



쌤다Q - 교사 크리에이터를 발굴/지원하는 유튜브 채널

지금 티처빌 SNS에서 선생님을 위한 소식들을 바로 바로~확인하세요!



인스타그램
팔로우



페이스북
좋아요



카카오톡
친구추가



티처빌
구독



쌤다Q
구독

2020년 신규과정 Coming Soon

진학 지도는 우리의 손으로!

2학점

2021 대입 지원 전략! 수박 먹고 대학 간다(이해편)



박 권 우

『수박 먹고 대학 간다』 저자, 이화여대 부속고등학교 입시전략실장



강의 개요

〈수박 먹고 대학 간다〉 세 번째 이야기. 자타공인 최고의 입시전문가 박권우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박 먹고 대학 간다〉가 벌써 3년째 신규 과정을 론칭한다. 2021-2022 대입 기본사항, 대입 시행계획 및 수능 기본계획을 설명했으며, 전형별·대학별 입시전략을 철저하게 분석했다. 더하여 〈2021 대입 지원 전략! 수박 먹고 대학 간다(이해편)〉에서는 2019년 11월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수록해 2024 대입까지도 대비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기존 연수의 후기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교사들이 어려워하거나 궁금해 하는 부분을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풀어냈다.

강의 특징

- 2019년 11월 28일 교육부 발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반영
- 입시 관련 자료 분석 방법 안내
- 학생의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는 전형별·대학별 공략 방법 제시

강의 개요

우리는 유럽에 대해 얼마나, 또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본 연수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유럽의 역사가 우리 삶에 미친 영향과 유럽의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점을 알아본다. 유럽을 이해해보자는 취지로 역사뿐만 아니라 미술·건축·음식·패션·영화 등의 주제로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배경지식을 제공한다. 패션디자이너·요리연구가·큐레이터·세계사 작가·영화평론가 등 5명의 전문가가 유럽의 역사에 스토리를 더해 강의함으로써 유럽에 대한 호기심이 끌어내고, 이해를 넓혀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강의 특징

- 화려한 강사진! 패션디자이너 황재근, 요리연구가 홍신애, 큐레이터 엄미나, 『스캔들 세계사』의 저자 이주은, 영화평론가 김효정
- 유럽 여행을 하기 전이라면 꼭 알아야 할 유럽의 음식·패션·미술·건축·역사·영화 교양 지식을 제공
- 유럽을 여행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영상과 전문가들의 생생한 유럽이야기를 통해 유럽에 대한 깊이를 풍성하게 다루는 구성

유럽에 멋져 보자!

2학점

유럽에 미치다



황재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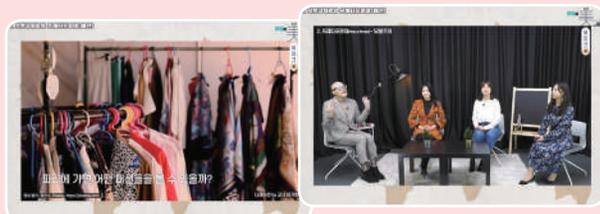


홍신애

김석목

성예원

이가현



교실에 숨어 있는 신인류,
포노 사피엔스를 찾아라!

1학점

**최재봉 교수가
알려주는 교실 속
포노 사피엔스**



최재봉

강의 개요

문명의 교체가 일어나는 혁명의 시대!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TV와 신문을 끊고 스마트폰을 미디어와 정보의 창구로 선택했고,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은행 지점에 발길을 끊고 온라인뱅킹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동시에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일상의 변화를 만든 근본 원인은 권력이나 자본과 같은 특정세력이 아니라 '포노 사피엔스'라는 신인류의 자발적 선택이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돌이킬 수 없는 문명의 대전환기를 살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누구보다 빠르게 수용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학생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이러한 포노 사피엔스라는 거대한 흐름을 이해하고,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베스트셀러 『포노 사피엔스』의 저자 최재봉 교수와 함께 새로운 인류·미래에 대해 알아보자!

강의 특징

- 베스트셀러 『포노 사피엔스』에서 보지 못한 새로운 포노 사피엔스 이야기 제공
- 강연장에 있는 것 같은 몰입감 높은 최재봉 교수의 현장 강의 영상 제공
-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궁금해 할 내용에 대한 최재봉 교수의 질의응답 제공



강의 개요

“너 왜 인사를 안 하니? 선생님을 보면 인사를 해야지”라는 말로 인사성 없는 아이를 인사성이 밝은 아이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물론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인사성을 키울 수 있다면 놀이와 삶 그리고 배움이 하나가 되는 교실과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본 연수는 우정·배려·화합·협력 등 인성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들을 소개한다. 오랜 시간 '놀이'에 대해 연구하고 고민해온 놀이전문가 6인의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인성을 길러줄 수 있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놀이를 만나보자!

강의 특징

- 짧지만 임팩트 있는 애니메이션으로 문제 상황 전달
- 교사들이 참여한 생생한 놀이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제공
- 강사 6인의 대답을 통하여 놀이 활동에서 담지 못한 내용 및 강사들의 놀이에 대한 철학 전달



놀이를 통한 인성 키우기 프로젝트

2학점

**놀이를 인성을 키우는
놀이터 학교 만들기**



지친 선생님들을 위한
선생님들의 공감과 격려!

2학점 **극한직업,
선생님을 부탁해**



안미영 신건철 왕건환 이상우 정재석

강의 개요

교사들만큼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며 성장하는 직업은 드물다. 학생·학부모·동료 교사 등 다양한 위치의 사람들과 마주하는 데 이 때문에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그 해결책은 누구도 제시해주지 않는다. 선배나 동료 교사의 조언으로는 부족하기에 오직 교사들이 상처받아가며 체득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교사들이 소진되기도 한다. 본 과정은 교사를 둘러싼 학생·학부모·관리자·동료·교권 등 5가지 영역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공감하고, 해결책을 찾으며, 나아가 교사들 마음에 행복을 찾아줄 수 있는 따뜻한 공감 연수다.

강의 특징

-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대처법 제시
- 교사들의 실제 경험을 공유하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 제시
- 강의 영상에서 주제와 관련된 법규부터 사례까지 참고할 수 있는 내용 제공



강의 개요

학생들이 자주 말하는 장래희망으로 ‘교사’가 포함되어 있는 일은 놀랍지 않은 일이다. 어느 세대이나 ‘교사’는 학생들의 장래희망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정작 교사들의 직업 만족도는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학생과의 갈등, 동료 교사와의 갈등, 학부모와의 갈등에 행정 업무 부담까지 교사가 겪게 될 사건 사고는 무수히 많기도 하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다. 어느 누구도 이런 문제들의 예방법과 대처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다. 결국 선배들의 조언을 구하고 따라해 보지만 급격하게 바뀐 시대에서는 그마저도 통하지 않고 교사는 스스로의 무능을 탓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렇게 상처받은 교사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누구라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교사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공감과 위로와 격려를 전한다.

강의 특징

- 다양한 상황과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의 대처법 제시
- 교사들의 실제 경험을 공유하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 제시
- 다른 교사들에게 묻기 어려운 내용에 대해 솔직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가이드 제공



아프고 바쁜 선생님들을 위한
위로와 격려를 담은 조언!

4학점 **위로와 격려로
다시 쓰는 교사 위기
극복 가이드**



환영합니다, 선생님! 쌤에디션 '웰컴박스'

글. 김준호 티처몰사업부 수석

누구에게나 첫 출근은 설레고 긴장되는 일이다. 첫 발령을 받고 교실로 향하는 교사로서의 첫날 아침을... 선생님이라면 누구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교실 수가 줄어들고, 임용고시 경쟁률이 높아지는 불안한 상황에서 2020년 올해도 어김없이 시작된 새내기 선생님의 첫 학기!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2월, 티처몰은 쌤에디션 시리즈 '웰컴박스'를 출시했다. 쌤에디션이란 교사전용 다이어리인 ' 쌤다이어리'를 시작으로 교구를 넘어 '교사가 사용하는 물건도 감각적이고 예뻐야 한다'는 슬로건 아래 티처몰에서 만든 선생님을 위한 상품라인이다.

이번에 출시한 '웰컴박스'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선생님이라는 꿈을 이룬 신규 임용 교사를 위한 상품이다. 이번 상품은 학창시절 입시지옥을 거쳐 교대나 사범대를 거쳐 임용고시라는 큰 산을 넘고 이 자리까지 온 신규 교사를 축하하고 환영하는 의미로 기획되었다.

첫 출근하는 날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긴장되게 마련이다. 모든 게 낯설고, 무언가를 찾고 물어보는 것조차 조심스럽다. 가위 하나라도 필요할 때면 난감하기 일쑤이다. 사소하지만 선생님에게 꼭 필요한 데스크 사무용품을 오직 한분의 선생님을 위해 패키지로 담아놓았다. 블링블링한 골드 컬러와 고급스러운 벨벳 소재의 패키지로 새내기 선생님을 환영하는 동료의 마음도, 선물을 받는 신규 선생님에게도 실용적이면서도 멋스러운 선물이 될 것이다. **T**





티처몰 웰컴박스 CF <딸의 첫 출근>편

우리 딸, 많이 떨리지?
그동안 네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엄마가 잘 알아.

학교 다닌다고~ 고시 준비한다고~
애... 참 많이 썼다. 우리 딸!

그래도, 네가 그토록 바라던 오늘이잖니?
이제부터 시작인 거 알지? 잘~ 할 거야.

엄마가 응원할게. 파이팅!

선생님의 빛나는 시작을 응원합니다.
환영합니다.

웰컴박스CF <딸의 첫 출근>편 中 엄마의 내레이션.

선생님의 시작만큼 빛나는 웰컴박스

가장 빛날 선생님을 위한 웰컴박스 선생님에게 필요한 것만을 담았다.
블랙 색상의 벨벳으로 정중하고 고급스럽게 디자인했다.

선생님에게 꼭 필요한 8가지 데스크문구 세트.



스테이플러: 150x36x65mm(33호) 가위: 58x10x76mm
계산기: 110x16x145mm 왕관볼펜: 20x20x145mm



메모트레이: 256x89x39mm 연필꽂이: 80x80x114mm
테이프 디스펜서: 115x35x64mm 자석: 지름 24mm, 높이 9mm - 4EA



"그림을 선물하면서 세상이 달라졌어요"

혼자 그리던 그림 함께 나누기

글. 김화인 원봉초등학교 선생님

그림 좋아하나요? 교실에는 다양한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수업 시간이든 쉬는 시간이든 늘 그림 공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 아이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학생이었죠. 그런데 혼자 그림 그리며 만족하던 내가 어떻게 모두와 그림을 나누게 되었는지 들어볼래요?

아이들의 진로 반영한 모습 그려 선물하기

처음에는 스마트폰 배경화면과 케이스에 그려 개인 SNS에 올려 보관하는 등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 그림을 그렸다. 내 입맛대로 그린



스마트폰 배경화면 그림(왼쪽)과 스마트폰 케이스 그림.

뒤 완성된 작품을 보고 뿌듯해 하는 게 그 당시 그림을 그리는 가장 큰 이유였다. 하지만 그건 혼자 즐기는 그림을 그리던 대학생 때까지였다.

교사가 되고 난 후,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나만의 그림을 그리기보다 평소 예쁜 제품을 사고 남는 시간을 쉬는 데 사용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어떻게 하면 그림을 꾸준히 그리면서 지치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하던 나는 문득 아이들을 떠올렸다. '나에게만 선물했던 그림을 아이들에게도 선물해보자.' '단기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목표보다는 장기적이고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자.' 이런 마음으로 처음 시작한 일은 아이들의 캐리커처를 그리는 것이었다.

첫해에는 포스트잇에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간단히 얼굴을 그리고 짝막한 편지를 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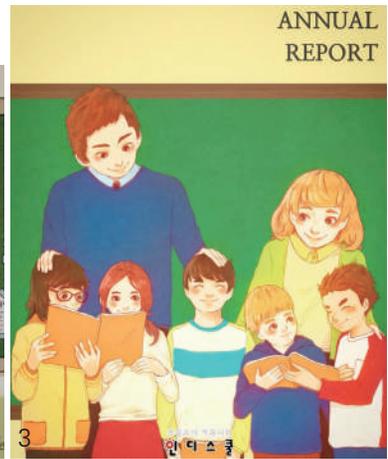
약력 김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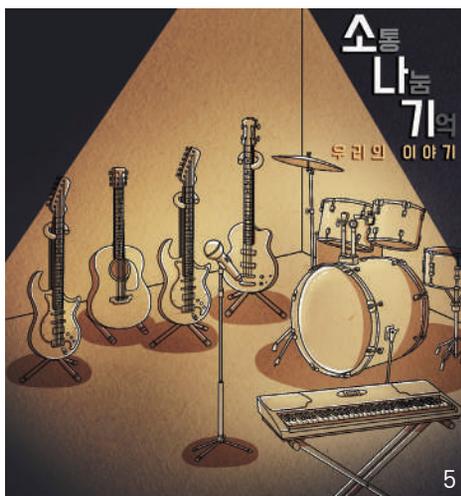
- 청주 원봉초등학교 교사
- 참쌤스쿨 2기
- 국정교과서 『안전한 생활』, EBS 『방학 생활』, 네이버 지식백과 『중학수학 비주얼 개념사전』 등의 삽화 제작



다. 다음해에는 아이들이 보관하기 편했으면 하는 마음에 도화지에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얼굴을 그려 편지봉투에 넣어주었다. 세 번째 해에는 연필로 좀 더 세밀하게 묘사하기 시작했고, 네 번째 해에는 수채화 색연필로, 다섯 번째 해에는 컴퓨터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아이들의 진로를 반영해서 미래의 모습을 그려 주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아이들과 학부모님께 많은 힘·보람·그림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을 얻게 되었다. 물론 아이들을 한 번에 그리기에 20~30명은 큰 숫자지만 3일에 1명, 1주일에 1명 그리다 보면 충분히 도전 가능한 숫자다. 혹시 그림에 자신이 없는 선생님이라면 아이들의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불러와 트레이싱(사진의 불투명도를 조정하여 희미하게 남기고 그 위에 선을 따라 그리는 방법)으로 시작해도 좋을 것 같다.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선물하기 위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이 프로젝트는 분명히 선생님께 교직 생활





5



6

1. 인디스쿨 대문.
2. 세월호 교육 영상 삽화.
3. 인디스쿨 보고서 표지.
4. 동료 선생님들께 만들어준 도장.
5. 교사 밴드 공연 포스터.
6. 충청북도교육청 소식지 표지.



을 이어나가기 위한 긍정적인 원동력 중 하나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한다.

'참쌤스쿨' 합류 이후 선생님들에게 선물하기

학년 마무리를 하며 아이들에게 캐리커처를 나눠주고 보람을 느끼던 2016년은 내 인생에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 할 수 있다. 바로 '교사가 최고의 콘텐츠다'라는 타이틀로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제작·공유해 교실과 학교, 교육의 변화를 꿈꾸는 전국 단위 교사 모임인 '참쌤스쿨' 2기가 된 일이다.

이전까지는 교실 안에서만 그림을 나눴다면 참쌤스쿨에 합류한 이후로는 동료 선생님, 우리 학교, 우리 교육청 더 나아가서 전국의 선생님들과 나누기 위해 그림을 그렸다. 참쌤스쿨 합류 계기로 교육과 관련된 그림을 그려서 공유하기도 하고, 교사 모임의 공연 포스터를 디자인하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 활용하면 좋을 클립아트를 만들기도 하고...

나 혼자만 그리던 것을 선생님들과 나누다보니 혼자 만족하며 그리던 때보다 더 꾸준하게, 더 열심히, 더 만족하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최근에 기억에 남는 일은 1년간 함께했던 같은 학년 선생님들의 캐리커처 도장을 만들어준 것이다.

내 자존감, 교직에서의 보람 위해 나에게 선물하기

아이들을 위해서 캐리커처도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 콘텐츠도 제작했다. 하지만 본질로 돌아온다면 나 자신에게 자존감, 교직에서의 보람을 주기 위해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림 실력을 떠나서 정성이 가득한 그림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꾸준함은 그림 실력을 키우는 데 든든한 친구 같은 역할을 해준다. 올해는 나를 위해 그림을 그려 나에게 선물해보고 싶다. ①



교실을 사로잡는 마법의 한마디! 곤란한 교사를 위한 50가지 꿀팁!

위기의 선생님에게 반격이 필요해!

저자. 마쓰오 히데아키
옮긴이. 이선영
감수. 허승환
출판사. 테크빌교육

최근 학교폭력이나 교실에서의 교육활동 침해와 같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언제나 문제의 조건은 유사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었던 게 사실이다. 눈앞의 문제에만 천착하는 일은 결국 장기적으로 학교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신규교사나 예비교사가 적극적으로 새롭음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봉쇄해왔기 때문이다.

저자인 마쓰오 히데아키는 이처럼 하루하루가 진검승부인 학교에서의 교육에 대해 오랫동안 목소리를 내온 18년 차 초등학교 교사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게끔 메스를 대고자 한다”고 말한다. 각종 교육계의 문제로 인해 피폐해진 교실에 힘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위기의 선생님에게 반격이 필요해!』는 교사의 업무와 깊이 연관된 다섯 가지 상황을 ‘학급 만들기’, ‘개별 대응’, ‘수업 만들기’, ‘학교 행사’, ‘학부모·동료’로 구분하고, 각각의 50가지 상황에 맞는 반격의 방법을 제안한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각 상황에서의 다양한 실패 사례를 제시하고, ‘왜? 어째서?’ 코너를 통해 실패의 근본 원인을 분석한다. 나아가 ‘여기서 반격! - 반격의 한마디’ 코너를 통해 반격을 위한 한마디와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성공의 비결’을 통해 반격의 목적과 이유를 정리한다. 더불어 특별 코너인 ‘허쌤의 교실 이야기’에서는 감수자인 허승환 선생님이 일본과는 다른 한국의 교육 상황에 맞게 추가한 꿀팁을 만날 수 있다.



초등교사를 위한 재미있는 수학 교과서 똥배쌤의 점프 수학

저자. 이영배
출판사. 테크빌교육

아이들도 선생님도 지루한 수학 수업, 어떻게 해야 더 재미있고 유익할까? 초등교사로서 십수 년간 실생활 수학 연구를 해온 '똥배쌤' 이영배가 그간의 교사와 학생 모두를 위해 더 즐겁고 효과적인 수학 수업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강의식 수업이나 반복 학습보다는 창의적이고 탐구적인 수업 활동에 집중할 뿐 아니라 학생들이 수학에 흥미를 느끼고 몰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 방법을 알려준다.

『똥배쌤의 점프 수학: 초등교사를 위한 재미있는 수학 교과서』에는 교사가 자신의 수학 수업에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담았다. 또 아이들이 스스로 수학에 흥미를 느끼고 몰입할 수 있도록 수학 워밍업 활동을 비롯해 점프 과제, 하브루타 대화법, 놀이 활동, 생활에서 수학 개념 찾기, 수학 역할극 등의 창의적 수업 활동을 안내해준다.



6세부터 9세까지 공부머리 키우는 학교 적응 놀이

저자. 박희진 외 6명
그린이. 김한걸
출판사. 테크빌교육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 입학 전후! 이 시기 아이들에게 부모의 관심과 함께 놀이가 가장 중요하다. 무엇으로, 어떻게 노느냐가 아이의 두뇌와 인성, 신체 발달을 좌우한다. 이에 착안하여 베테랑 현직교사 8인이 집과 학교에서 수많은 아이를 관찰하고 발달을 촉진하면서, 놀이와 학습, 아이 발달의 관계를 연구하고 정리해 책으로 출간했다.

『학교 적응 놀이: 6세부터 9세까지 공부머리 키우는』은 어떤 놀이가 아이의 발달에 효과적인지에 대한 이론적 바탕 위에서, 초등 입학 전후시기에 꼭 필요한 핵심 놀이 80여 가지를 뽑아 그 놀이 방법과 효과를 글과 사진, 그림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부모와 함께하는 놀이 및 친구와 함께하는 놀이, 학교 적응 놀이, 교과 연계 놀이, 야외 체험 놀이 등으로 나누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게 구성했다.

리얼 초등교사 생존기 섭섭한 라이프

그림. 송정섭
춘천 호반초등학교 선생님

그녀의 기념품





SNS를 통해 웹툰을 그리는 초등교사 송정섭입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리얼 초등교사 생존기! 섭섭한라이프'를 연재하고 있으며, 인스타그램에는 교사를 위한 콘텐츠도 함께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고, 저도 도움받고 성장하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섭섭한 라이프



영유아 부모자녀관계검사

Parents-Child Relationship Test

육아에도 **봄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육아에는 정답은 없지만, **솔루션**은 있습니다.

- ✔ 우리아이는 스트레스가 없을까요?
- ✔ 자녀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신가요?
- ✔ 아이기질 & 나의 양육유형에 알맞은 맞춤형 훈육법 들어보셨나요?



지금은 모르셔도 됩니다.

부모공감 자체개발 영유아 부모자녀관계검사를 알게 되면

육아자신감 UP! 현실육아 만족도 UP!

현실육아솔루션 1

부모자녀관계검사 (PRT)

연령: 15~36개월

연령: 만 3세~7세

 영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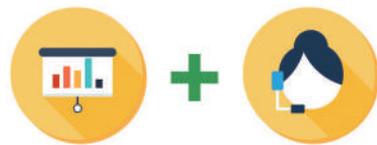
 유아용

문항: 133문항 소요시간: 약 15분

- 모바일로 검사는 쉽게! 약 15분
- 검사결과지도 빠르게 모바일로 확인!

현실육아솔루션 2

검사 + 1:1육아코칭



- 원하는 시간에 집에서 편하게 전화상담!
- 검사는 빠르게! 코칭은 자세히! 전화상담 5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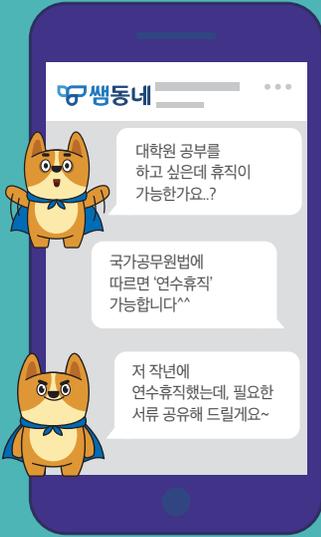
우리아이의 기질과 나의 양육스타일이 궁금하다면?

www.bumoschool.com



똑똑!! 툽!툽!

쌤톡톡으로 고민 순-삭



새학기 모든 고민은 여기서 해결하세요!
동료, 선배교사 & 전문 상담가와 함께
고민은 순-삭!



쌤톡톡이 준비했어요!

PC와 모바일 어디서나~ 편하게 질문하고 빠르게 답하자!
쌤톡톡은 #온니티처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에요!
수업,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모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바로 그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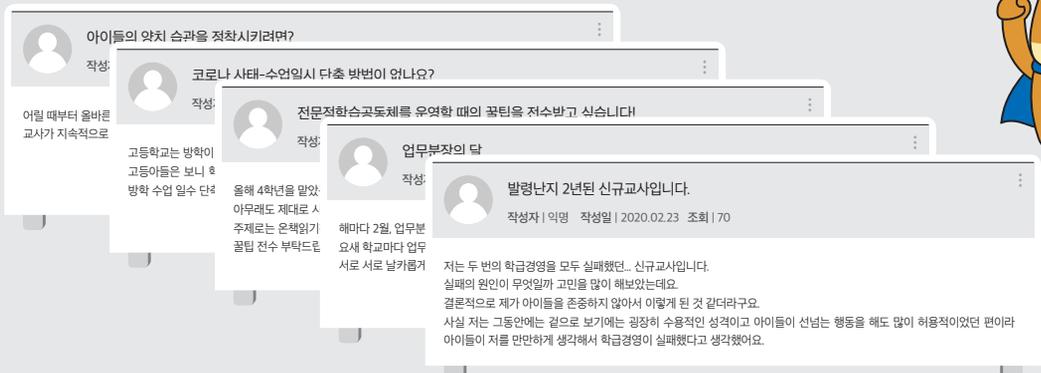
상담톡톡
전문상담가에게
조벽, 최성애 교수님의 HD행복연구소 전문상담가에게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는 기회!

공감톡톡
공감과 힐링
학교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고민을 편하게 나누세요!

지식톡톡
멘토링과 정보공유
학교 수업/복부/업무 관련하여 선배, 동료, 후배교사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지식공유 공간!

법률톡톡
Coming soon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법적 대응 방법을 전문 변호사에게 비공개로 상담할 수 있는 공간!

쌤톡톡에 올라온 선생님들의 이야기



동료 선생님들의 이야기에 공감, 위로, 노하우 전달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선생님의 이야기도 공유해 주세요.
쌤톡톡 바로가기!!



👤 티처빌연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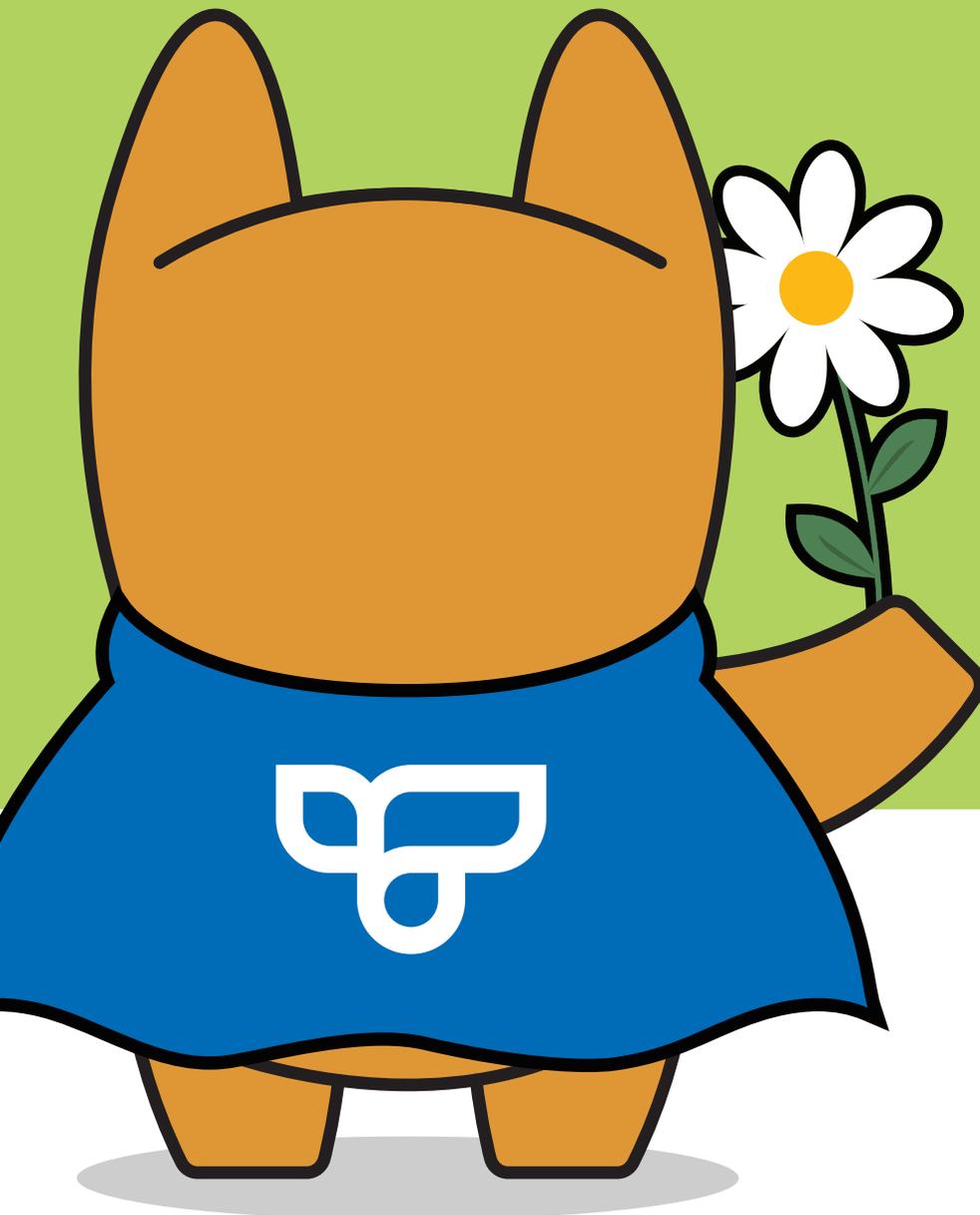
👤 쌤동네

👤 티처몰

👤 즐거운학교

👤 키즈티처빌

👤 부모공감



티처빌
공식 유튜브 채널



쌤다Q
교사 유튜브 채널